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제606호

지면안내 04 사회 관리 없는 방치, 캠퍼스를 방황하는 유학생 06-08 제39회 한성문학상 09 사람들 틀을 깬 분석, 주식의 흐름을 읽다 12 기획 책이 선사한 특별한 순간

## 무너지는 민주주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 동원으로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배한 행위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였다.

한성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난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한 이 사태에 개탄스러움을 느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에 따라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우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독재적 행위를 지적하며, 우리의 선택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소리쳤듯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소리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한성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 시국에 맞서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한성대학교 168인의 규탄문

한성대학교 학생 168인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언어도단(言語道斷)

어이가 없어 말하러 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위협한 계엄령 선포와 상식을 뛰어넘는 투표 거부권 행사 등의 만행은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부터 이어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결코 나올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 한성인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반민주적인 탄핵안 부결에 대해 분노하며 민의를 좌절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대학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체로서,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고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위헌적인 불법 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학 본질을 짓밟고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윤석열의 포고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한성인은 헌법 기본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행정부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성인 168명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서명 참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김두겸 등 168인 작성

2024년 12월 9일

12 / 1

▲본교 구성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이하 선언문)을 게시했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와 재·휴학생 및 졸업생이 각각 선언문을 작성해 상상관·우촌관 등 본교 곳곳에 대자보를 부착했다. 중운위는 지난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자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재·휴학생 및 졸업생이 작성한 선언문은 지난 7일과 9일에 걸쳐 게재돼 16일까지 부착된다. 중운위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고, 재·휴학생 및 졸업생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한성대학교 168인의 규탄문’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게재했다. 두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헌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 없이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와 기본권 탄압 행위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을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재·휴학생 및 졸업생은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시국선언 서명운동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했으며 13일 기준 240명의 재·휴학생 및 졸업생이 참여했다. 타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선언서를 게재하고 집단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 교비로 부담금 납부, 법인 “법적 근거 없어”

본교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미이행하며 발생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교육 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교비회계’(이하 교비)로 납부한 것이 확인됐다. 사립학교는 현행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속해서 미이행하고 있다. 또한 미이행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학교 운영이나 교육에 써야 하는 교비로 납부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장애인 고용을 통해 부담금 납부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사무국은 부담금을 교비가 아닌 법인에 해당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로 낼 여력이 되지 않아, 부담금을 법인회계로 지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한성학원)은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학교법인인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하 고용률) 3.1%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성학원은 ▲한성여자중학교(이하 한성여중) ▲한성여자고등학교(이하 한성여고) ▲한성대학교 ▲법인의 상시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성학원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성학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는 18명, 17명, 18명,

17명, 18명이다. 그러나 한성학원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의 평균은 14명, 11명, 10명, 7명, 14명으로 나타났다.

총무인사팀 측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률 충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민이(총무인사팀) 팀장은 “대학교라는 교육기관 업무 특성에 맞는 대상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매 학기 신규 인력 총원 시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고용률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지원 인력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성학원은 매년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한다. 학교법인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총무인사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성학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4억 2,4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 중 약 5,000만 원은 법인이 법인회계를 통해 지불했으나, 나머지 약 3억 7,400만 원은 대학 측이 대학의 교비로 부담했다.

부담금 내역과 관련해 법인사무국은 한성여중과 한성여고가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만 법인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장배(법인사무국) 국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전액 법인회계에서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성여중·고에 해당하는 부담금만 법인회계에서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비는 등록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수입을 기반

으로 교육적 목적에만 사용돼야 하는 경비다. 학생의 장학금,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이 세출 내역에 해당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른 부담금이 학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해야 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법인이 법인회계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교비회계로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주(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노무사는 “한성학원 전체의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교비회계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총무인사팀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팀장은 “향후 적절한 고용관리로 부담금 납부를 감액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비가 보다 교육적 목적과 연관돼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사무국은 재정적 여건상 법인회계로 부담금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장은 “법인에서 대학 측으로 부담금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법인의 순수익금 규모를 고려했을 때 법인회계로 납부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며 “법인회계를 통해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다른 부분의 재정 투입이 우선된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 한성SW페스티벌 개최

‘한성SW중심대학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지난달 29일 상상관 체육관, 상상베이스 등에서 개최됐다. 올해 첫 개최된 본 행사는 재학생이 산학 협력 소프트웨어(이하 SW) 및 인공지능(이하 AI) 기업과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알리기 위한 자리다. 재학생들의 SW·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페스티벌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해 본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관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

페스티벌은 ▲개회식 ▲SW온캠퍼스 인턴쉽 및 프리캡스톤 전시(이하 전시) ▲코딩대회(이하 대회) 결선 ▲SW/AI개발 특강 ▲시상 및 폐회식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SW온캠퍼스인턴쉽·프리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통해 산학 협력 기업이 제시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보고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재학생들이 개발한 SW·AI 서비스 창작물을 전시하면, 기업 측 담당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결과물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했다. 대회는 프로그래밍 플랫폼을 통해 제시된 알고리즘 기술 구현 문제를 코딩으로 풀어내면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특강은 SW·AI 분야의 트렌드를 학습하는 자리로 실무 전문가를 초청해 시행됐다.

전시 및 대회 부문별 시상의 심사는 본교 교수진과 전시 프로젝트를 제안한 SW·AI 관련 기업 관계자가 맡았다. 심사 후 전시에서 ▲대상(1팀) ▲최우수상(3



▲페스티벌 준비로 토론하는 참가자들

팀) ▲우수상(5팀)이 선정됐고, 대회에서는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5명) 수상이 이뤄졌다.

전시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상준(컴공4) 학생은 “입상을 목표로 좋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상을 받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규산(AI응용1) 학생은 “학습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이하고자 했다”며 “대회를 위해 준비했던 부분이 완벽하게 진행돼 뿌듯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김남윤(SW중심대학사업단) 단장은 “재학생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기술 역량을 발휘하며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페스티벌이 참여자에게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미래관 앞 야외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학생들이 줄을 서있다.



▲선거유세를 진행하는 창의융합대학 '서로' 선본



▲제40대 총학생회에 당선된 'WE:RO' 선본이 유세하고 있다.



▲상상관 1층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는 학생

# 총선거 종료, 7개 중앙기구 출범

## 공석단위 재선거 치뤄진다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이하 총선거)'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총선거에서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의융합대학 등 7개 중앙기구가 모두 당선됐다. 한편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미래플러스대학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출마하지 않아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40대 총학생회 선거는 경선으로 이뤄졌다. 기호 2번 'WE:RO' 선본의 이영재(사회과학 2) 정학생회장 후보와 오예은(컴공 3) 부총학생회장 후보가 2,025표(56.62%)를 득표해 당선됐다. 기호 1번 '필연' 선본은 1,542표(42.35%)로 뒤를 이었다. 선거는 재적인원 6,478명 중 3,641명(56.21%)의 투표 참여로 이뤄졌다.

제41대 총대의원회 선거 결과 '청월' 선본의 이연준(컴공 3) 정의장 후보와 이수민(기계전자 2) 부의장 후보가 찬성 12표(80.00%)를 얻어 당선됐다. 재적 대의원 18명 중 15명(83.33%)이 투표했다.

제42대 학생복지위원회 선거에서 '여운' 선본의 김재민(산공 3) 정위원장 후보와 이건주(컴공 2) 부위원장 후보가 찬성 3,125표(85.80%), 반대 455표(12.49%)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투표는 재적인원 6,478명 중 3,642명(56.20%)이 참여했다.

제39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라움' 선본의 남다운(산공 2) 정회장 후보와 라수빈(사회과학 3) 부회장 후보가 찬성 2,835표(77.82%), 반대 749표(20.56%)를 득표해 당선됐다. 재적인원 6,478명 중 3,643명(56.24%)이 투표에 참여했다.

제8대 디자인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Syner

gy' 선본의 광다혜(ICT 2) 정학생회장 후보와 이윤비(패션 3) 부학생회장 후보가 572표(88.00%), 반대 69표(10.62%)를 얻어 당선됐다. 1,215명의 디자인대학 재적인원 중 650명(53.50%)이 참여했다.

제27대 IT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은율' 선본의 신성진(산공 2) 정학생회장 후보와 박지우(컴공 3)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906표(79.20%), 반대 209표(18.27%)로 당선됐다. IT공과대학 재적인원 2,002명 중 1,144명(57.14%)이 투표했다.

제4대 창의융합대학 선거는, '서로' 선본의 김현진(문콘 2) 정학생회장 후보와 신기령(사회과학 2)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290표(87.61%), 반대 41표(12.39%)를 얻어 당선됐다. 창의융합대학의 재적인원 495명 중 331명(66.87%)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총선거에서는 트랙·학과(부) 학생회 투표도 함께 이뤄졌다. 9개 트랙의 트랙학생회장과 3개 학과(부)의 정·부학생회장이 선출됐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에서는 ▲영미문화콘텐츠트랙 ▲영미언어정보트랙 ▲역사문화콘텐츠트랙 ▲역사콘텐츠트랙 ▲지식정보문화트랙 ▲디지털인문정보트랙의 트랙학생회장이 당선됐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에서는 ▲공공행정트랙 ▲기업경영트랙 ▲회계·재무경영트랙의 트랙학생회장이 선출됐다. 디자인대학의 ICT디자인학과와 글로벌패션산업학부의 정·부학생회장이 당선됐다. 창의융합대학은 문학문화콘텐츠학과의 정·부학생회장이 선출됐다.

선거를 진행한 김동규(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총학생회는 경선으로 진행됐지만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중앙기구도 있다"며 "재선거가 이뤄지게 돼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학생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있는 학생

# 신규 중앙운영위원회 발족, 미래를 향해 도약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학교와 학생 간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제40대 총학생회에 당선된 이영재 총학생회장

제40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WE:RO(이하 위로)' 선거 운동본부의 이영재(사회과학 2), 오예은(컴공 3) 후보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위로는 ▲복지 ▲교육 ▲소통 ▲문화의 4개 분야에서 총 12개의 공약을 내세웠다.

복지 분야에서는 ▲금연구역 캠페인 ▲복학예정자 총선거 투표권 ▲국가근로 장학생 선정 기준 강화 ▲무료 법률 상담 진행 등을 내놓았다. '금연구역 캠페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총학생회 국원이 학내 금연구역에서 피켓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복학예정자 총선거 투표권'은 차기 년도에 복학 예정인 학생에게 제공된다. 매년 11월 말에 진행되는 1학기 복학 가요 조사에서 '복학 예정'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다음해 총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다. '국가근로 장학생 선정 기준 강화'는 교내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약이다. 면접에 대한 점수 기준표를 신설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무료 법률 상담 진행'은 구글폼을 통해 접수받은 상담 내용을 사전 섭외된 본교 출신 변호사에게 전달 후 답변 내용을 총학생회 측이 신청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로 진행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업 환경 조성 ▲한성 아이디어 경진대회 ▲소모임 개편 확대 ▲예비군 학업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학업 환경 조성'은 시험기간 동안 상상배이스를 24시간 개방하는 공약이다. 보다 안전한 학업 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험기간 오전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상상배이스에 총학생회 상주 인원이 배치된다. '한성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본교 재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의 주제는 '한성대학교를 브랜드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다. 1학기 중 개최 예정이며, 진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소모임 개편 확대' 공약의 이행을 위해 기존에 60개였던 소모임의 개수가 100~12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예비군 학업권 보장'은 ▲학생 예비군 기간 학습권 침해 신고 창구 운영 ▲학생 예비군 필기자료 공유 사업 실시 ▲학생 예비군 수업자료 제공을 골자로 한다. 오 당선자는 "예비군훈련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당 공약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통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월별 달력 제작'을 내세웠다. '찾아가는 총학생회'는 분기

별 피드백 진행과 찾아가는 총학생회 부스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분기별 피드백은 행사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 및 요청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로 나누며, 접수된 불만사항과 개선 요청은 학생대표 간담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총학생회 부스 운영은 미래관 앞에서 분기별 1회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생회 월별 달력 제작'은 총학생회비 사용처와 공약 이행 상태를 반영해서 이뤄진다.

문화 분야에서는 '단과대학 연합 체육대회'와 '한성마라톤' 공약을 선보였다. '단과대학 연합 체육대회'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의융합대학 등 5개의 단과대학이 참가하는 대회로, 2학기 중 낙산관 체육관에서 3일 동안 진행된다. '한성마라톤'은 성북구육상연맹과 협업체 4~6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미래플러스대학 소속 학생들은 대부분 주말에 등교하기 때문에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참여 단과대학에서 제외됐다"며 "미래플러스대학 측에서 참가를 희망한다면 수요조사 진행 후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당선자는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교와 학생 간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질서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제41대 총대의원회에 당선된 이연준 정 의장

제41대 총대의원회 선거에서 '청월' 선거운동본부의 이연준(컴공 3), 이수민(기계전자 2) 후보가 각각 정·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청월은 ▲단과대학별 학생회칙 제정 ▲상임위원 개편 ▲월간지 홍보 및 활성화 ▲대의원 인식 개선 및 참여율 증진 ▲선거 교육 시행 ▲감사위원회 감사 매뉴얼 제정 등 6개의 공약을 선보였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플러스대학 등 6개 단과대학의 학생회칙이 부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학별 학생회칙 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과대학별 학생회칙은 학생회칙에 근거해 제정되며,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의 논의를 통해 각 단과대학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정립된다. 이연준 당선자는 "2025학년도 1학기 내에 모든 단과대학별 학생회칙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 개편'이 이뤄질 계획이다. 학생회칙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각 트랙·학과(부)별로 3학년 혹은 4학년 대의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감사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약의 이행을 위해 기존에 진행된 상임위원 모집을 중지하고, 각 단과대학별 6명씩 총 36명의 상임위원을 투표로 통해 선출한다. 또한 기존에 상임위원이 받던 5만원의 장학금이 10~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수민 당선자는 "상임위원은 대의원 또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학생이 우선적으로 선발되고, 부족할 경우 학생자치기구 대표자나 학생회 활동을 경험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적인 콘텐츠 업로드를 통한 총대의원회의 업무 및 활동을 알리기 위해 '월간지 홍보 및 활성화'가 시행된다. 월간지는 감사 일정, 대의원·상임위원 총회 일정, 선거 일정 등이 포함되며,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링크트리 ▲총대의원회 카페에 게시된다. 이연준 당선자는 "월간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총대의원회에 대한 쿼트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월은 '대의원 인식 개선 및 참여율 증진'을 위해 대의원 설명회 및 역할지침서를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대의원 선출 시기에는 오프라인 부스를 통해 홍보 자료가 배부된다. 이수민 당선자는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추천 이벤트를 계획 중에 있고, 오프라인 부스에서는 학생 참여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선거 교육 시행'이 이뤄진다. 선거 교육은 후보 등록 전 사퇴서 제출 기간에 진행되며, 세칙을 후보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연준 당선자는 "선거 교육 시행을 통해 후보자들의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 감사 매뉴얼 제정'도 시행된다. 감사 매뉴얼은 감사시행세칙을 기반으로 제정되며, 상반기 감사 기간 전 낙산의 메아리,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후 모든 학생은 감사 매뉴얼을 열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연준 당선자는 "질서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학생들의 마음속에 온기를 채우겠습니다”



▲제42대 학생복지위원회에 당선된 김재민 정 위원장

제42대 학생복지위원회 선거에서 '여운' 선거운동본부의 김재민(산공 3), 이근주(컴공 2) 후보가 각각 정·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여운은 ▲보조배터리 대여 업체 제휴 ▲대동제 재학생존 보완 ▲학생 예비군 버스 대절 ▲공동구매사업 추진 ▲학식당 메뉴 신선행사 ▲제휴업체 유지 및 확대 ▲플리마켓 행사 진행 ▲간식사업 품목 변경 등 총 8개의 공약을 내놓았다.

'보조배터리 업체 제휴' 공약은 보조배터리 대여 기기를 설치해 총학생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보조배터리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조배터리 대여 기기는 상상관이나 상상파크 등 학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대동제에서 총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이 재학생존에 들어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동제 재학생존 보완' 공약도 제시됐다. 해당 공약은 입장 시간에 차이를 뒤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이 우선적으로 재학생존에 입장하고 이후 일반 학생이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한다. 총학생회비 납부 및 재학생 여

부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생 예비군 버스 대절 사업'이 실시된다. 총학생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 예비군이 버스를 탑승할 수 있다. 추가로 학생 예비군을 대상으로 간식 사업도 실시된다. 김 당선자는 "예비군훈련이 끝날 무렵에 버스 탑승 학생 예비군이 적은 것을 감안해 후반부 운행 버스를 줄이고 중반부 운행 버스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생필품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숙사 거주 학생이나 자취하는 학생을 위해 '공동구매사업 추진' 공약도 내세웠다.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이 구글폼을 통해 구매 물품을 신청한 뒤 학생복지위원회실에서 물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기숙사 입주 시기에 홍보가 시작돼 3~4월쯤 실행될 예정이다.

'학식당 메뉴 신선행사'가 시행된다. 투표를 통해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를 선정한 뒤 해당 메뉴를 학식당에서 출시하는 공약이다. 이 당선자는 "현재 학식당 신메뉴의 판매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학생들이 모르

는 경우가 많다"며 "신메뉴 판매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휴업체 유지 및 확대' 공약의 이행을 위해 제휴 업체가 확대된다. 또한 종강 후에는 계절별 특별 제휴가 도입될 계획이다. 여름, 겨울 계절 스포츠 등 계절 맞춤 제휴도 진행된다.

'플리마켓 행사 진행' 공약도 선보였다. ▲위생 ▲훼손 ▲상품성에 따라 학생들이 가져온 중고품물의 점수가 매겨지고 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행사는 개강 축제 때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종료 후 본교의 이름으로 수익금이 환경 관련 기부처에 제공된다.

시험기간 진행되는 간식사업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간식사업 품목 변경' 공약이 제시됐다. 구글폼을 통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뒤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속에 여운이 남는 온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다채로운 학교생활을 만들겠습니다”



▲제39대 동아리연합회에 당선된 남다운 정 회장

제39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라움' 선거운동본부의 남다운(산공 2), 라수빈(사회과학 3) 후보가 각각 정·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라움은 ▲분과 특성에 맞춘 전문가 초청 ▲동아리 연합활동 활성화 ▲동아리 활동 홍보 방식 개편 ▲동아리 시설물 사용 시스템 개편 ▲분과위원장 역할 강화를 통한 분과 특성 강화 등 5개의 공약을 선보였다.

라움은 '분과 특성에 맞춘 전문가 초청'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본교의 동아리는 ▲학술 ▲종교 ▲체육 ▲평면예술 ▲공연예술 ▲취미봉사 등 6개의 분과로 나뉜다.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각 분과별로 2~3명의 전문가를 초청한 뒤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전후로 전문가와의 만남이 워크숍 및 세미나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동아리 연합활동 활성화' 공약도 선보였다. 피구 등 기존의 체전 종목은 유지되고, 체전 시작 전 기워바위

보완 선발전, 다트 던지기, 룰렛 돌리기 등 연합 레크리에이션이 추가된다. 행사는 동아리원뿐만 아니라 비동아리원도 참여할 수 있다. 남 당선자는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과적인 동아리 홍보를 위해 '동아리 활동 홍보 방식 개편'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아리 홍보가 이뤄졌지만 동아리 홍보 책자가 새롭게 제작돼 팔고당, 창의관과 미래관 엘리베이터 근처 등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달의 분과' 형식으로 분과에 따라 상시 홍보가 진행된다. e-class에도 홍보 자료가 게시돼 학기 초 동아리 모집 기간 동안 온라인 홍보가 시행될 예정이다.

동아리 시설물 중복 대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아리 시설물 사용 시스템 개편'이 진행된다. 구글 스프

레드시트를 활용해 시설물 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분과위원장과 동아리 회장을 거쳐 각 동아리원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설물 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분과위원장 역할 강화'를 통한 분과 특성 강화 공약도 선보였다. 분과위원장은 동아리들을 특성에 맞춰 나눈 분과의 대표로, 총 6명이 존재한다. 기존에 주요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공약의 이행을 통해 분과위원장의 역할이 동아리 감사 또는 연합활동 준비 등으로 체계화된다. 또한 동아리연합회 운영국 회장단과 분과위원장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동아리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회의는 한 달에 1회 진행될 예정이며, 건의사항의 개수에 따라 회의의 주기는 변동될 수 있다.

끝으로 남 당선자는 "다양한 동아리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다채롭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관리 없는 방치, 캠퍼스를 방황하는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이하 유학생) 20만 명 시대. 교육부는 지난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러 대학이 유학생 전담 학과(부)를 신설하며 캠퍼스 내에서 유학생과의 교류도 한층 쉬워졌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이 이들을 위한 사회·교육적 기반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다지진 않은 채 유치만을 자행하고 있어, 입학 후 '나 몰라라'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여행객이나 영주권자와 달리 대한민국에서 학습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기에 동법에 따라 유학생 전용 비자인 '유학(D-2)' 혹은 '일반연수(D-4)' 비자를 부여받는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활동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비자 부여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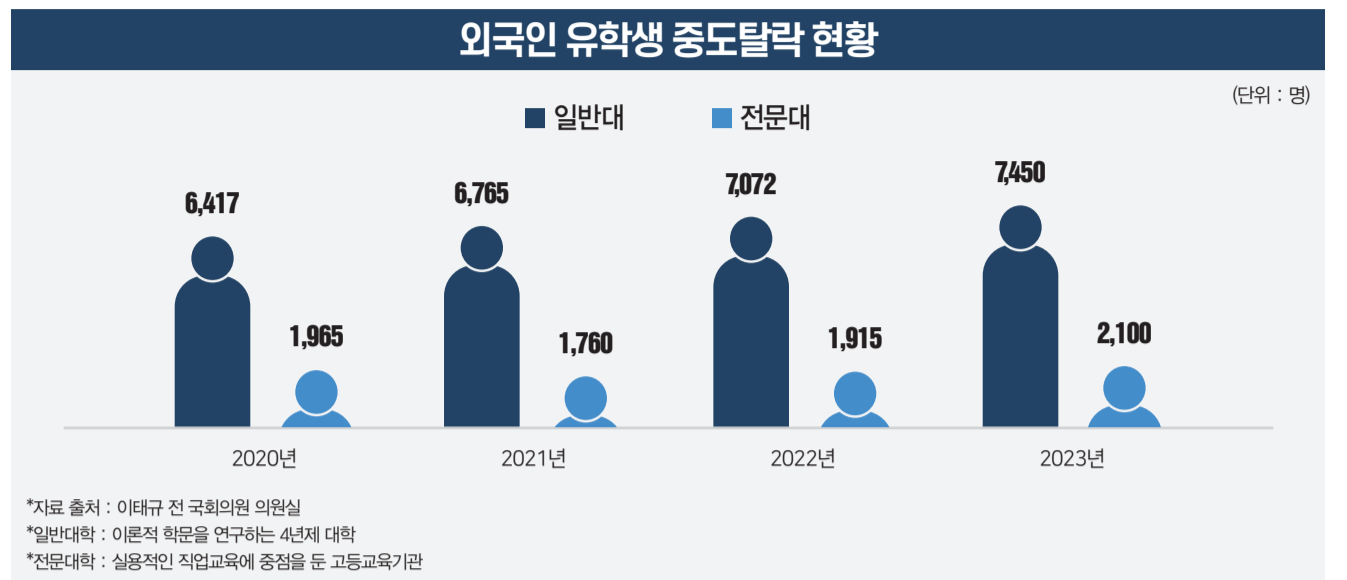
교육부는 ▲지역 대학 위기 극복 ▲해외 인재 확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유학생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유학생 유치에 통해 국내 학령인구 감소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도 국내 고등교육 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52,281명에 그치던 국내 유학생 수는 2023년 181,842명, 2024년 4월 기준 208,962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교일(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교수는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 줄고 지방 소멸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유학생을 적극 유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이들의 학업이 졸업까지 이어지지 않고 도중에 중단되는 '중도탈락'도 증가하고 있다. 중도탈락은 유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자퇴 ▲미등록·미복학 ▲학사경고 ▲제적 등의 상황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태규 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학생 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제 일반대 기준 매년 6,417명, 6,765명, 7,072명, 7,450명을 기록했으며 전문대 기준 1,965명, 1,760명, 1,915명, 2,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탈락 이후 유학생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유학생이 유학 혹은 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지만 도중에 비자가 소멸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일부 유학생은 노동을 목적으로 비자를 소멸시키기도 하지만, 학교 행정의 공백으로 의도치 않게 비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학업 중도탈락 이후 대학이 학적변동사항 등을 법무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하지만 학교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면서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상술한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불법체류는 2020년 28,240명에서 2023년 36,005명으로 증가했다.

유학생이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에



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학생은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도'를 통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엄격히 제한돼 유학생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어학연수자 및 대학생의 경우 주중 최대 10시간 혹은 25시간으로 한정된다. 국민대학교 S1비대이터융합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에잇미야노(미얀마) 학생은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만 아르바이트를 원활히 수행하기엔 근로 시간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도를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더라도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은 해당 제도를 통해서만 경제활동

을 할 수 있다. 제도에 부합하지 않게 근로할 경우 경제활동에 제재가 가해진다. 경제활동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누진(몽골) 학생은 "유학생 근로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7만 5천 원인데 고용주가 23만 원으로 납부시켰다는 부당한 사례를 지인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한성대학교 글로벌패션산업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모마까지(미얀마) 학생은 "가계의 사정으로 인해 규정된 유학생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했으나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유학생의 경험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유학생의 중도탈락 문제는 대학 및 지자체의 지원 서비스 부족에 기인한다. 유학생이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및 교류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하지만 지원되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일례로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토픽) 준비에만 집중된 학업 지원으로 문화 적응 및 교류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용승(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유학생 입학 후에는 학업, 문화 및 생활 적응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각 대학에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유학생의 불법체류 증가의 원인으로 유학생 관리 당국의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당국은 유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이후 관리 책임을 대학에 일임하고 있다. 대학은 교육부가 제공한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 요령」을 바탕으로 관리를 이룰 뿐이다. 그러나 해당 매뉴얼이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에 그쳐 대학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권중락(동명대학교 국제교류처) 처장은 "유학생 관리 당국이 대학의 실질적인 유학생 관리 업무와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일방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자와 학점, 출석률 등에 따라 근로 시간이 제한된 점이 유학생 경제활동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일반연수 비자를 갖는 학생은 주중 10시간 내로만 일할 수 있고 유학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도 주중 근로 시간은 최대 10시간 혹은 25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들은 모두 대학에서 토픽 점수, 학점·출석률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는 학생만이 제한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용승 교수는 "아르바이트 시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근무가 허용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실질적으로 해당 제도에 따른 근로 시간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문제는 고용주가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도 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할 경우 고용주는 유학생이 취업했다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

분증명서, 성적 및 출석 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명서류 등 총 7개의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학생의 개인 서류 준비,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절차, 고용주의 협조, 그리고 법무부 신고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하므로 신고를 생략한 채 불법적으로 유학생을 고용하는 실정이다. 모마까지 학생은 "신고 서류와 절차가 복잡해 고용주가 취업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을 시켜주는 사례가 많다"며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알려질 경우 추후 유학생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학생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의 학습 및 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과 단위로 1-2학년 학생의 학업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습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이 대두된다. 현재 대학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원은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에 편중돼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교류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일상생활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도혜(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전공) 교수는 "유학생에게 대학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불법체류자가 된 학생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거나 학업의 사를 재차 묻는 해결 방안이 제시된다. 대학 행정상의 문제로 비자가 소멸된 학생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면, 학적 변동 사항이 법무부에 접수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불법체류를 예방하는 대안도 거론된다. 이교일 교수는 "정부와 대학은 유학생이 불법체류가 아닌 학업을 결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도의 성적·출석률 등의 조건에 따른 근로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학업을 우선시하며 경제활동을 가능하겠다는 해당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 맞춰 한국어수행능력을 파악하고 근로 시간을 현행 규정보다 늘리는 방안이다. 이교일 교수는 "근로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한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학생이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는 행위이므로 신분증명서, 재학 증명서 정도의 서류로 즉시 법무부에 신고하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권 처장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율동성을 발휘하면 고용주, 유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 손쉬운 접근, 숨겨진 위험

QR코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캔을 통해 결제, 주문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로 '큐싱'이다. 큐싱은 'QR코드'와 '피싱'의 합성어로, QR코드를 활용한 해킹 범죄를 의미한다. 큐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큐싱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전무하다.

큐싱은 QR코드를 스캔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해지는 가짜 QR코드를 유포하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돼 악성 앱이 다운로드되며,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실제로 SK실터스의 「2024 보안 위협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탐지된 온라인 보안 공격 중 17%가 개인을 노린 피싱·큐싱 범죄였다. 정순채(법무법인 린) 전문위원은 "큐싱으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특히 대중적인 장소에서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큐싱에 노출돼 있다. 가해자가 공유 키보드에 부착된 정상 QR코드 위에 악성 QR코드 스티커를 덧붙이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다. 황진석(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아무런 의심 없이 QR코드를 촬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큐싱에 의해 악성코드가 설치된 휴대폰은 해킹 등 여러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서 악성 QR코드가 주로 부착될 수 있는 자전거나 킥보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의 개수는 2020년 7만 대였던 것에 비해 2023년 29만 대로 대폭 증가했다. 공

유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업체의 미흡한 관리의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황 교수는 "공유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공공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의 검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등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나라지표의 「사이버범죄 발생 및 근거」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은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문위원은 "사이버범죄의 가해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범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범죄 역효과가 악화되고, 피해자 증가와 사회적 불안감의 증대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QR코드 생성 시 URL의 유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성 QR코드를 만들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QR코드 생성 사이트에서는 QR코드 생성 시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악성 QR코드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유지호(한양사이버대학교 해킹보안학과) 교수는 "QR코드는 생성과 인쇄에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서 악성 QR코드를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공유 자전거·킥보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보안 기능의 부재가 이용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업체의 미흡한 관리감독은 공유 모빌리티의 운영비용 증가를 불러온다"고 전했다.

사이버범죄 수사관의 사이버수사 기피 현상이 사이버범죄 검거율의 하락을 초래했다는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이버범죄 가해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

는 등 타 범죄에 비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정 전문위원은 "통신수사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난해해 수사관들이 사이버범죄 수사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QR코드 생성 사이트에서 QR코드 생성 시 첨부하는 URL의 유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악성 URL 주소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예컨대 구글의 자회사인 VirusTotal은 이용자에게 악성 콘텐츠가 URL에 포함돼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현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URL 유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큐싱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서 악성 QR코드를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도 제시된다. 예컨대 '서울자전거 따릉이'는 악성 QR코드가 부착돼 있어도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캔 시 대어 불가 안내가 나오며 외부 링크로 연결되지 않는다. 정 전문위원은 "업체에서 QR코드 생성 및 관리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의 암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해 전문 사이버수사대를 편성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등 사이버범죄 유형을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정 전문위원은 "수사관들의 수사 의지를 향상하고, 역동적인 사기를 양성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URL: 인터넷에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주소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편집자주〉

‘20대가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상식’ ‘경제 초보를 위한 경제 개념 10분 요약’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경제 관련 콘텐츠들이다. 대학생이 됐으면 경제개발 상식 정도는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관심을 가져보려 해도 까다로운 경제 용어가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겨우 이해했다 하더라도 경제 뉴스 한번 읽어볼까 하면 공부했던 기억이 휘발되곤 한다.

경제주체로서 현명하게 소비하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사회 전체의 경제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면 경제 원리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이를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당 10,030원. 내년에 시행될 ‘최저임금’의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두고 최저임금 합의 주체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정부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논의와 결정을 추진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과정을 거치기에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과 최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 삶을 위한 최저 기준을 설정하다



## 노동의 가치가 숫자로 환산되다

‘노동’은 인간의 육체·정신적 능력을 활용한 생산활동을 일컫으며, 자본이나 자연자원처럼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주요 생산요소 중 하나다. 개별 노동자인 가계가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면 기업이 이를 활용해 상품을 생산해 낸다. 자본이나 자연자원이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노동은 사람의 노력과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요소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정민(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의 경우 일반상품과 달리 사람의 기술로 생산활동을 하는 점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노동력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하고 그 대가로 가계에 ‘임금’을 지급한다. 이때 임금수준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먼저 ‘노동공급’은 일정 기간 가계가 제공하려는 노동의 양을 뜻하며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금과 여가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가계가 선택할 수 있다. 가계가 24시간 중 노동과 여가의 가치를 저울질해 노동공급량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가계가 노동을 제공하고자 의사를 표하면 기업이 이를 활용해 고용을 이룬다. 고용은 기업의 ‘노동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수요는 기업이 상품 생산을 위해 구입할 의사가 있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하기를 원하는 정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생산량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가 비롯된다. 소비자가 기업의 상품 A를 많이 원하면 기업은 상품 A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가계가 제공하는 노동량인 노동공급과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량인 노동수요가 일치하면 노동시장에서 ‘균형’이 형성되고 이 지점에서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일하려는 사람의 수와 일할 사람을 구하는 기업의 요구가 일치하면 임금이 정해진다는 의미다. 가계의 노동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점에서 임금은 높게 형성되고 반대의 경우 균형점에서 임금은 낮아지는 형태를 띤다.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이 형성되며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균형지점에서 모든 노동자가 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제각기 달라지는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노동자의 교육 수준, 직무 숙련도 등의 요소에 따라 노동공급과 생산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학력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생산성을 갖는 경향을 띠므로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육 수준이나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의 경우 비교적 많은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노동수요에 비해 노동공급이 많고 생산량이 낮을 가능성이 커 임금은 낮아진다. 이 교수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교육 수준, 직무 숙련 정도에 따라 노동자가 창

출하는 생산물의 가치가 달라져 임금 격차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낮은 교육 수준이나 비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지급되는 임금의 최하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가 자유롭게 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오 본부장은 “노동자는 노동에 의해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때 노동자 생활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가 주요 산정 근거가 된다. 이를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참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지출이 큰 식료품이나 교육비 등 주요 항목의 가격 변동을 분석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수준을 예측해 최저 임금을 산정한다.

‘유사 근로자의 임금’도 최저임금 산정 근거로 작용한다. 유사 근로자란 직무나 업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노동자를 의미한다.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유사 근로자 임금의 하위 10~20%에 해당하는 임금과 비교한다. 이후 격차와 불평등 정도를 분석해 최저임금이 조정된다. 유사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으면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해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가 과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서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도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이때 국내총생산(GDP)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지표로 사용된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 영역 내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한 상품의 총규모를 나타내고,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창출한 소득의 비중을 드러낸다. 두 지표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생산된 전체 상품 규모에서 국민의 소득 중 노동의 기여도를 파악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오 본부장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지표를 총체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이 산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기준이 최저임금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노동자 각자의 생활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이견을 조율하며 노동자 생활 보장 및 경제적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오 본부장은 “경제 지표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산정돼야 하므로 정부에서 논의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여러 입장이 합의돼야 할 때

다가오는 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다. 지난해 9,860원에 비해 1.7%가 인상된 수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실망스러운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노동자 생활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인상률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이다.

낮은 인상률을 두고 여러 지적이 들끓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노동자와 사용자(이하 노사)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노사가 인상을 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등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투표에 부쳐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이때 노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익위원이 손을 들어 주는 쪽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판가름 난다는 지적이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최저임금이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5%이지만, 상술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시 청년 등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뒤따른다. 2015년부터 위원회에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소속이 아닌 노동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당시에 청년 노동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나 전체 청년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없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정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대표성이 실현되지만 청년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대표위원으로 포함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공익위원의 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중립성 문제는 공익위원 선출 과정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실효성을 담보할 권한과 책임이 부족한 학자나 교수로 구성된 노사 양측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어렵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인물이 선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노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익위원을 제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부가 공익위원

을 선정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맞는 인물로 공익위원을 구성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산정 문제 원인으로 최저임금 산정 근거가 매년 달라지는 점이 제기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인상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각 조건에 맞춘 통계 산출 방식이 다양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식도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생계비 기준을 1인 생계비로 할지 가구생계비로 할지 등의 해석적 차이가 있다.

일부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알 수 없는 점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심의 회의과정 미공개가 지목된다. 대다수의 국민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만,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알 수 없어 소수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반영됐는지, 정당성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 정책기획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위원의 모두발언만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한 회의록 공개는 위원회의 의사 표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국회 산하로 이관해 공익위원을 선출하고 논의를 이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회를 통하면 공익위원 선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논의의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산하로 이관됐을 경우 여야 정당이 공익위원을 선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아래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사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교수는 “여러 입장을 반영해 공익위원을 선출하고 논의하도록 국회 산하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산정 방식의 해석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된 최저임금 산정 공식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물가상승률, 기업의 성장률 등 세분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임금 산정 공식을 마련하면 소모적인 논의를 줄이고 노사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기재(사단법인 한국팻산업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산정 공식은 노사의 입장 차이를 줄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 과정에서 회의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매년 최저임금 산정 근거와 방식 등에 있어 회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부적절한 산정이라는 논란이 일기 때문이다. 회의과정을 공개할 경우 여러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심도를 높여 다양한 노동자의 입장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 정책기획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주관하는 TV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논의의 쟁점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사회적 공론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사에서 화제의 신인 작가 J의 소설에 관한 칼럼을 작성해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난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J는 대학 시절 나와 같은 문학 창작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이였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지는 대략 5년 정도 되었다. 물론, 내가 알던 J는 소설에 재능이 있었고, 예전부터 충분히 등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그가 소설집을 출간한 것을 알게 된 순간, 내가 가져왔던 그의 재능에 관한 생각은 현실로 드러난 셈이었다. J의 등장은 문학계를 놀라게 했다. J는 감각적 문장으로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의 허망함을 다루었는데, 어느 평론가는 그의 작품이 근래에 나온 청춘 소설 중에서 가장 열광적이었다며 높이 평가했다. 독자들의 반응 또한 열광적이었다. J가 소설집을 발표했다는 소식은 나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한동안 명한 정신을 붙잡을 방법이 없었다.

나는 소설가가 되지 못했다. 대학 졸업 후 2년간은 소설 쓰기에 전념했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무역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자, 나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에 서른을 앞두고 소설 쓰는 것을 미뤄야 했다. 운이 좋아서 한 신문사 문화부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는 많은 기사를 작성했다. 신문도 그런 내게 신뢰를 보내며, 특히 내 전문 분야인 책 관련 칼럼을 종종 맡아곤 했다. 그렇게 J의 소설에 대한 칼럼도 내가 작성하게 된 것이었다.

J가 고내 문학상을 받으면서, 나와 J 사이에는 미묘도저히 J의 소설 칼럼을 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신문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의 경력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작은 신문사였기에 나 말고는 J가 칼럼을 쓸 사람이 마땅히 없다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나는 J의 소설 칼럼을 쓰기로 했다.

신문사의 칼럼 작성 지시를 받고 내가 한 일은 우선 J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자 J의 정보란에서 J에 대한 이력과 그가 쓴 소설에 관한 정보가 나왔다. 소설집의 제목은 〈단절〉이었다. 최근에 찍힌 듯한 J의 사진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진은 아마 겨울에 촬영되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목도리를 매고 있었으니까. 사진 속 배경은 미술관 같지만, 카메라의 초점이 흐릿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었다. 전과 달리 안경을 쓰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지만 단번에 그가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J의 눈빛이 변함없이 매서웠기 때문이었다.

- 그해에는 많은 신입회원이 들어와서 환영회는 유례없이 북적였다. 동아리 회장이었던 나는 신입회원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띈 사람은 J였다. J는 나보다 두 살 연상이었고, 많은 양의 독서를 했으며 등단을 목표로 글을 쓰고 있었다. 여러모로 통하는 점이 많았던 우리는 금세도 친해졌다. 나와 J는 문학 동아리의 정규 활동인 합평은 물론, 공경 시간에도 동아리방에서 자주 함께했다. J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신력과 다양한 면모에 더욱 빠져들었다. 어느 날 J는 내게 같이 소설을 준비해서 신춘문예에 도전해 보는 게 어떻냐고 고안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합평하며 소설을 쓰고 서로 고칠 점을 얘기해주기로 했다. 당시 나는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 본 경험이 없었기에 그의 제의가 무언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동아리방에서 합숙하며 각자의 소설을 완성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당선되지 못했다. 수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신춘문예에 응모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줄 것이라 믿었다. 전국의 수많은 작가 지망생과 경쟁했던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여기며 실망을 참았다. 그러나 J는 꽤 낙담한 것 같았다. 그는 한동안 동아리방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가끔 보더라도 표정이 확연히 어두워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춘문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J가 고내 문학상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신춘문예에 떨어진 바로 그 소설로 고내 문학상에 응모하여 수상했다. 나는 온갖 정신이 신춘문예에 팔려 있었기에 고내 문학상에 큰 신경을 쓰지는 못했다. 분명 고내 문학상에도 응모할 생각이 있었으나 나는 출품하지 못하였다. 고내 문학상이 조기 마감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J는 고내 문학상 대회가 조기 마감되었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J가 태어 J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묻지 않았다. 다른 회원 모두가 J의 고내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있을 때, 나 혼자 만만치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저 J가 모든 회원들에게 축하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만 볼 뿐이었다.

J가 고내 문학상을 받으면서, 나와 J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흐르게 되었다. J를 따르는 회원이 서서히 많아졌다. 심지어 동아리에서 매년 진행되는 문집 제작 등의 중요한 동아리 운영 계획에 관해서도 회장인 내가 아니라 J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 서 J는 자신이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대답하곤 했다.

-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J의 필력과 문학적 소양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원래부터 그가 나보다 뛰어나는 사람이었다고, J만 가까이 만나보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J는 자신이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대답하곤 했다.

J가 고내 문학상을 받으면서, 나와 J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흐르게 되었다. J를 따르는 회원이 서서히 많아졌다. 심지어 동아리에서 매년 진행되는 문집 제작 등의 중요한 동아리 운영 계획에 관해서도 회장인 내가 아니라 J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 서 J는 자신이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대답하곤 했다.



## 제39회 한성문학상

 소설 부문

수 상 | 이정유(매선 4)

심 사 | 황창상 소설가

삼 화 | 청보연(CT 3)

 시 부문

수 상 | 홍서영(CT 2)

심 사 | 박덕규 시인

삼 화 | 오민지(당양화 3)

## 폭로

이정유

의 근황에 대한 궁금증으로 머리가 가득했던지라 막판에 참여를 결심했다. 술자리에 가면 그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알아낼 기회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J가 말하. 요즘 성공한 거 같더라고
-맞아. 생각할수록 대단해.
-내 말이. 그는 문예창작학과는커녕 인문대생도 아니잖아?
J에 관한 이야기가 예상대로 주를 이루고 있었다. 모두가 J에 열광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J와는 오랜 세월 소식을 끊어진 상태였다. 그들이 J에 열광한 건 정말로 그와 친해서라기보단 자신들이 활동한 동아리에서 소설가가 배출된 일종의 자부심 때문일 것이었다.

J에 대한 소재거리가 떨어지고 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만을 나날 뿐이었다. 그러다가 어느덧 화제는 J가 아닌 다른 회원들로 넘어갔다. 한 친구는 술에 취한 채 당시 활동하던 여자 회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회장이자 자네 나로서는 이런 얘기가 듣기 거북해서 한쪽 귀로 흘려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쉬지 않고 떠들었다. 그때 김여정의 이름도 오랜 만에 들렸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을 무언가가 스쳤다. 바로 여정이 썼던 글이었다. 여정이 동아리 활동 당시 쓴 단편 소설과 J의 소설집에 실린 단편이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여정은 내향적이고 말수가 적었다. 그녀는 문학에 전방위적으로 관심이 많았지만, 동아리 활동 때는 합평 같은 정규 활동에만 참여했고, 다른 친목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회원들이 있었어도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나는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여정에 관해 물어봤다. 하지만 다들 술에 취했는지, 내 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아니면 그들은 여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정은 그저 조용한 여자였으니까.

- 다른 기사들까지 작성할 일이 많아서 J의 소설 칼럼을 작성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칼럼 작성뿐만 아니라 J의 소설을 읽기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 편집장은 마감일이 다가오다며 나를 재촉했다. 나는 매일 날마다 전화로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때마다 나는 대충 말을 돌려댔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나는 서서서 들고, J가 쓴 소설을 찾아 구매했다. 구태어 찾을 필요도 없었다. 서점 J의 서점 소개 신간 소설 매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소설집 〈단절〉을 읽어냈다. 표지의 디자인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했다. 흰색 표지에 검은 동그라미 두 개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 동그라미는 사람의 눈동자처럼 보였다. 마치 이 책을 읽은 나를 노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집에서 나는 그의 소설을 천천히 읽어냈다. J의 소설집은 6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설집에 수록된 J의 소설은 수준 이상이었다. 소설들은 중첩되기도, 지루하지도 않았다. 뛰어난 작품이 몇 편 수록되어 있었고 모난 작품은 없었다. 동아리 내에서 독보적인 실력이었고 당시에도 등단을 노리고 있던 그였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품을 출간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무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마치 J의 소설집은 여정의 습작 소설을 이리저리 재조립해서 엮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민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J의 소설과 여정의 습작 소설을 비교했다. 정말로 비슷한 구석이 많았다. J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내가 느낀 감정은 허무에 가까웠다. 여태껏 J를 경쟁자로 생각했던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우선 여정에 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에 전 동아리 회원 명부에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이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우선 여정에 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에 전 동아리 회원 명부에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이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여정의 습작 소설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인쇄장에서 기계음과 함께 붉은 빛이 나며 종이와 한 장씩 출력되기 시작했다. 인쇄가 완료되자 여정의 습작 소설을 정리하여 서류 가방에 넣었다. J의 소설집 〈단절〉도 함께 챙겼다. 다음날은 J의 출판 기념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J 직접 확인해 보셔야겠습니까?
나는 J를 향해 압박을 가했다. 처음에는 J가 자백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J는 나를 가볍게 무시하고 강당을 나가려고 했다.
-대답할 거지도 없어. 모두 헛소리야.
J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꾸 도망치려는 모습에 비로소 나는 J가 여정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J는 이미 강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고 나는 J를 붙잡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 왜 내게서 선미를 빼어갔습니까? 선미는 그녀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녀를 망가뜨리기까지 했어요.
-J 이유를 정말로 몰라?
-J 강당의 문 앞에서 멈추며 말했다. 나는 J의 뺨뺨함에 당황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실마 있어버렸어? 그때 네가 폭로했었잖아. 공모 전이야.

- 최근 문학계에서 주목받는 J에게 출판 기념회 행사장은 강당 좌석이 꽉 찰 정도로 청중이 많았다. 자리가 꽉 차 있었기에 나는 뒤에 서 있었다. 카메라 빛대가 J와 진행자의 대화를 촬영하고 있었다.
나는 뺨 뒷쪽에 서서 진행자와 J의 대화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J는 진행자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며, 향후 계획으로 장편 소설을 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을 들은 청중은 환호했다. 나는 당장이라도 J의 표절 사실을 청중들에게 밝히고 싶었다. 마침내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그들은 청중과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했다.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대답이 끝나고 청중들과 인사를 갖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줄을 서서 J를 보기 위해 기다렸다. J는 내 앞에 있던 청중들만 악수를 해주고 있었다. 청중들과 인사를 하던 J와 눈이 마주쳤다.
-뭐야? 여긴 어떤 일이야?
J가 깜짝 놀란 얼굴로 내게 말했다.
-전에 우리가 한 약속 있었나요? 먼저 등단한 사람이 있다면 축하해 주기로 한 거.

내 뒤에 청중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나는 어서 자리를 비켜주었다. 내가 올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었다. J는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 노력하며 청중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청중이 가져온 그의 책에도 사인을 해주었다. 그의 인기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말이다.
J는 마지막에 떠나는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다. 모두 자리를 비우고 J와 나 둘만이 이 자리에 남게 되었다.
-어떤 일이야? 말도 없어요?
기자가 됐어요. 사실 선미 소설에 대한 칼럼을 쓰기로 되어 있어요.
-인터뷰는 하지 않을 거야.
-물론 그럴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J는 나를 빨리 떠나게 만들고 싶은 사람처럼 굴었다. 그는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짐을 정리했다. 마치 어디론가 빨리 떠나는 사람처럼 말이다. 짐 정리를 마친 J가 강당을 떠나려고 할 때,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뒤돌아서 나를 쳐다봤다.
-J 선미가 김여정의 작품을 표절한 것을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J와 여정의 관계를 의심했다. 여정은 그 시기에 J와 붙어 다녔다. 게다가 J가 자신이 쓴 소설을 데리 투고하기를 요구했다더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요구했을 텐데, 그러나 여정이 학교를 그만둔 후,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있었다. 졸업 준비로 정신이 없던 데, 내 폭로로 여정이 자리에 이르렀다는 죄책감이 그 기억을 외면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후 J는 자취를 감춘 여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저 은둔하며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었다.
J는 일 년 후에 복학했다. 그리고 다시 학교생활을

당시 J의 소설이 여정의 이름으로 공개되었을 때, 나는 J와 여정의 관계를 의심했다. 여정은 그 시기에 J와 붙어 다녔다. 게다가 J가 자신이 쓴 소설을 데리 투고하기를 요구했다더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요구했을 텐데, 그러나 여정이 학교를 그만둔 후,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있었다. 졸업 준비로 정신이 없던 데, 내 폭로로 여정이 자리에 이르렀다는 죄책감이 그 기억을 외면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후 J는 자취를 감춘 여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저 은둔하며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었다.
J는 일 년 후에 복학했다. 그리고 다시 학교생활을

### 소설 부문 심사평 : 수상작 <폭로>는 사람 양심지수 읽기의 끈질긴 소설이다

제39회 ‘한성문학상’을 어떤 방법으로 심사해야 이 상의 권위에 맞는 수상자를 고를 수 있을까? 심사위원은 스스로 맞고 답했다. 심사위원은 응모작을 모두 읽고 <폭로>, 이정유, (마라톤), 김재현, <소원의 골짜기>, 김민상 세 편을 다시 읽으며 차분히 들어갔다.

<폭로>는 서사의 구성이 치밀하고 설득력이 있다. 주제 또한 표절 규명이라는 명분이 확실하다. 실체의 진실과 허상의 거짓이 공존하는 세상 그리기는 일마디 지워지고 파문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소설은 밝음과 어둠이 뒤바뀐 현장을 끝내 바르게 잡아 보인으며 사람 양심지수 읽기의 평명을 높였다.

(마라톤)는 젊은 예술혼의 권애와 아픔을 그려 보이고 있다. 회사원 정민은 너무나 열정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첫 연인을 떠나보내고, 그림을 하면서 알게 된 두 번째 연인과의 갈등하면서 인내하는 바리워로서 인생은 하나의 마라톤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워지는 것일

황창상 소설가

했고 동아리에도 돌아왔다. 동아리 회원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활동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J는 내 전 여자 친구 선미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처음엔 제멋든 장난이었지만, 점점 더 진지한 복수가 되었다.

-그래서 선미에게 접근한 겁니까?
-나는 나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었어.
-선미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 둘이 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여정에게는 잘못이 있었을까? 여정은 모든 걸 알았어. 나는 네 여자 친구를 망가뜨리는 걸 즐겼지. 그리고 서서히 부수 버렸어.
나는 순간 변했다. J는 선미와 교제하면서 정서적인 학대를 입삼았다. 나에게 복수하려는 철저하 고의적인 의도였다. 선미는 서서히 망가졌음에도 J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J는 선미를 버렸던 것이었다.

- 신속 연애 끝에 두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J가 그때 선미를 빼앗아 가고 망가뜨린 건 결국 그때 공모전에서 내 폭로 때문이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이제 내가 J의 표절에 관해 물어볼 차례다.
-당신은 김여정의 작품을 표절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대리 투고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표절까지 저질렀어요. 대중은 표절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공개되지 않은 습작 소설이예요.
-습작 소설이라고 해도 그녀의 작품이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만일 이걸 기사로 써서 전국의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믿어요?
-지금 와서 네가 문제 삼아 봤자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을 거야.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그때, 네가 표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나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방금 J가 한 말이 그가 간접적으로나마 표절을 인정한 것으로 들었다. J가 일종의 자백을 했음에도 내가 복잡해졌다.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너무도 많았다.

나는 여정의 작품을 간접적으로나마 내 작품에 녹여내고 싶었어. 그녀의 소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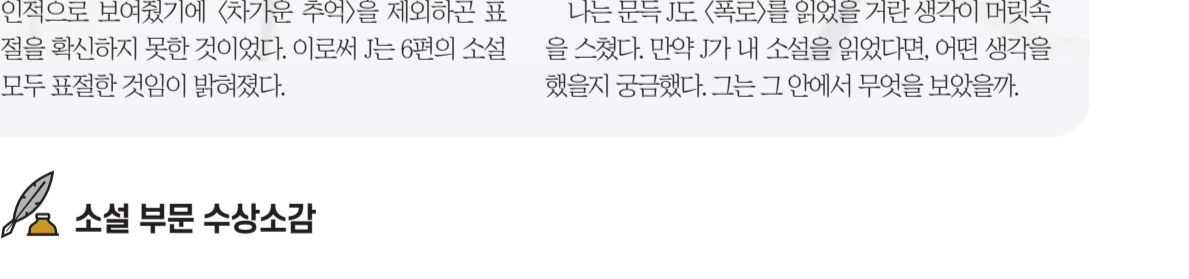
문제의 공모전 당시 여정은 자신의 이름으로 J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에 부담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당시 J의 제의를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친구라는 이유에서였다.
-여정에게 죽을 정도로 미안했다. 그녀에게 보낼 하고 싶었어. 그녀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번엔 반대로 여정의 작품이 J의 이름으로 공개된 것이었다. 아이러니한 순간이었다.

-(차가운 추억)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짐시다. 그럼 다른 작품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작품들은 표절 같으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모든 작품이 그녀의 작품을 토대로 만들어졌어. 다만 그 작품들은 나에게만 보여준 것이었지.

이제야 실태가 풀리는 것 같았다. 여정은 나머지 습작 소설 일고를 동아리에 공개하지 않고 J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줬기에 (차가운 추억)을 제외하곤 표절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로써 J는 6편의 소설 모두 표절한 건임이 밝혀졌다.



리에서였다. 비록 잘 쓰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쓰려고 노력했다. 소설은 내 대학 시절의 전부였고, 그만큼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러나 소설을 계속 써야 할지, 아니면 단순히 추억으로 남겨둬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이번 소설을 끝으로 단발간 소설 쓰는 일을 미뤄두고 싶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은 총계도 한성문학상에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고, 내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어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다. 특히 방황하던 이 시절에서의 수상은 나에게 더욱 값진 기억으로 느껴졌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소설을 계속 써볼 용기를 얻은 것 같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다양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대학 생활 동안 함께한 수많은 친구가 모두 내게 소중한 존재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J는 여정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녀의 작품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그녀의 글을 각색해 자신이 발표했다. 그렇다고 J가 어떤 활약한 이유를 저질렀다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이제 나에게 해줄 얘기는 끝났어. 진실을 알게 된 거분이 어때?

-솔직히 말하면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선미가 여정의 작품을 표절한 이유가 그저 단순한 것이라리 생각했습니다. 그저 창작 불안 같은 것 때문인 줄 알았어요.
-기차라고 했지? 이번에도 폭로해 봐.

J는 그 말을 마치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끝까지 당당했다. 아니면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그는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출로 빈 강당 안에 남겨졌다.

- 그날 이후, 나는 J에 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기사를 신문사에 제출하자 편집장은 깜짝 놀랐고, 내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이 기사가 신문사에 예상치 못한 역풍을 끼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신문사 내부에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나와 J가 같은 학교 출신이며,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새어나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때문에 내가 J에 대한 열등감으로 무리하게 기사를 작성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

결국, 신문사로서 오랜 논의 끝에 기사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근 몇몇 언론은 문제로 사회가 어떠한 상황에서 작은 신문사로서는 이런 논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나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이 일을 그대로 덮어 두고 끝낼 수는 없었다. 진실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그렇게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J의 이야기를 반드시 풀어야 했다. 글을 쓰는 동안 머릿속이 과거의 기억들이 어지럽게 밀렸으며, 혼란스럽고 미친 듯했던 시절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마침내, 나는 장편 소설 <폭로>를 완성했다. 이 작품에서 나는 J의 표절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 노력했다. 물론, 소설 속 인물의 이름은 바꾸어 두었다.

나는 여러 차례 <폭로>를 투고한 끝에 마침내 한 출판사에서 출간을 결정했다. 출판사는 내 소설이 J의 표절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엔 출간을 주저했지만, 작품이 화제를 끌어들일 것이라는 판단을 했느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그들 역시 주목받을 작품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폭로>는 사정이 전열되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독자들은 소설 속 표절 작가의 정체를 추측했고, 눈치 빠른 이들은 그 인물이 J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런 의혹이 퍼지자, J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소설이 과장된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내가 소설의 화제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터를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소설은 입소문을 타며 많은 이들에게 읽혔다. 나는 한순간에 화제의 작가이자, 논란 속 고발자가 되었다.

나는 문득 J도 <폭로>를 읽었을 거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만약 J가 내 소설을 읽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시 부문 당선작

# 핀다

홍서영

장미라는 꽃에는 분명 가시가 돋쳐 있지요.  
 그러면 철조망에도 언젠가 꽃이 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렴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꽃은 피어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철조망은 제 몸을 굽으며 꽃을 떨어내려 하겠지만  
 꽃은 분연히 피어나 그런 철조망조차 품어줄 겁니다.

꽃이 철조망을 가려버릴 만큼 피면  
 무엇이 피어나도 놀라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철조망에 핀 꽃을 보고도 심드렁하게 훗훗한 미소를 지으며  
 그저 제 할 일을 마저 하러 가겠지요.

그런 유별난 날이 이어지면  
 철조망에 핀 꽃쯤은 그저 흔한 일상이겠죠.  
 그런 유별난 날에는 아무도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어지겠죠.  
 그저 누구의 허락도 없이, 다만 피어날 뿐이죠.



시 부문 심사평 : 우리에게는 언제나 피어나는 꽃이 있다

이번 제39회 한성문학상 시 부문에 총 64인의 320편을 맞았다. 이들은 우리 곁에 시가 있으며 그 시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가 쓰고 우리가 읽는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증명하는 물증이라 하겠다. 유년 시절의 꿈 또는 치기, 사춘기의 낭만 또는センチ멘털 등이 남아 있기도 했고, 여기에 청년기의 고독 또는 패기가 엮여 지기도 했다. 대체로 행과 연의 나눔을 기반으로 한 '짧은 양식'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지만, 반면에 그것이 응축과 긴장을 내재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었다. 습관처럼 남을 트집 잡는 행동에 대한 자성을 드러내는 「트집」, 부지런한 드라이 크리닝으로 깨끗이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결해지지 않는 삶을 비추는 「드라이 크리닝」, 불의가 난무하고 고통스러운 이웃을 외면하는 세태에 맞서 '초인'의 의지를 드러낸 「비감」, 순한 음악 소리의 재현을 꿈꾸는 「Acoustic」, 마을버스 한 대만의 교통수단에 의지하던 옛시절을 감각적으로 되살린 「흑

백 영화」 등이 시선을 붙들었다. 형상화라는 문제에서 아쉬움이 있어 선 외로 밀려났다. 「장미꽃을 지키는 가시」의 생태에서 '철조망을 감싸는 꽃'을 연상해 낸 「핀다」(홍서영)를 당선작으로 뽑는다. 대상에 집약하는 힘이 강하고, 그 강함이 시의 끝까지 달고 있다. 철조망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꽃이 자신의 피어남으로 그것을 압도해 버려서 결국 '철조망을 품은 꽃'으로 장식할 거라는 '이미지 스토리'를 빈틈없이 전면에 내세운다. 철조망이 전쟁이나 갈등을 상징하는 거라면, 꽃은 평화나 포용을 상징하는 것! 철조망 따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는 언제나 피어나는 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 이로써, 얼마간 '낙관주의'가 묻어난 약점마저 가릴 만하다고 봤다. 당선을 축하하고, 당분간 더욱 '시적인 시'가 어떤 것인가에 몰두하기를 응원한다.

박덕규 시인

시 부문 수상소감



홍서영(ICT 2)

작품 '핀다'를 구상하며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평화'였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모두 갈망하지만 그 의미는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단어를 떠올리며 평화란 무엇이고 그것이 실재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첫 문장이 떠올랐고 이후에는 이미지를 연상하며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실재하는 모난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포용될

수 있는 세상을 떠올리며 시를 완성했습니다. 처음엔 비교와 활동을 위해 시를 쓰기 시작했지만, 점차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시를 많이 써본 경험도 없어 단어 선택과 문장 구성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형식으로 작성하다 보니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흔히 평화라는 단어는 익숙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주제를 새롭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상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놀랐고 기뻐했습니다. 제가 표현하려 했던 의도가 독자들에게 전달된 것 같아 훗훗했습니다. 이 작품은 가족들의 피드백 덕분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눠준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 틀을 깬 분석, 주식의 흐름을 읽다

## 리서치알음 최성환 대표

(편집자주)

주식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바로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고 투자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다. 애널리스트의 주 업무는 소비자의 적절한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을 탐방해 주가를 예측하고 그 근거를 보고서로 작성하며 소비자들의 원활한 주식 투자를 돕는 데 일조한다.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해당 기업이 가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분석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들이라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필수적이다.

'쓰샹' 쓰면 상한가라는 별명이 뒤따르는 이가 있다. 유향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입지의 상승세를 타고 주식 분석 회사를 설립한 최성환(42)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최 대표는 기업의 눈치를 보며 보고서를 제작해야 했던 기존의 애널리스트의 환경을 바꾸고 싶었다. 기업의 영향 없이 주식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자유롭게 보고서에 담아낼 수 있길 바랐으며, '리서치알음'이라는 주식 분석 회사를 통해 이를 실천했다.

기존 증권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고, 직접 주식 분석 회사를 설립해 남들이 하지 못한 혁신을 이룬 최 대표. 그가 말하는 진정한 애널리스트는 무엇인지, 그가 가진 도전 정신을 파헤치고자 그가 걸은 길을 되돌아봤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사진 : 박석희 기자

### 애널리스트로 나아가다

그가 처음부터 주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구체적으로 정한 진로도 없었다. 때문에 그는 어영부영 진학한 경영학과에서 재무나 금융에 대해 알아갔다. 하지만 우연히 군대에서 접한 책이 주식에 대한 그의 관심을 제고시켰다.

“대학입시 시절 무언가를 하고 싶은 확신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취업도 잘되고 인기가 많은 경영학에 입학했죠. 대학교 1, 2학년 때는 주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유도 없어서 주식을 직접 하지도 않았죠. 군대에 있을 때 우연히 생활관에서 주식 관련 책을 접한 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경영학과에서 주식 분야로 많이 진출하기에 더욱이 관심이 생겼죠. 책을 읽고 '주식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깨닫고 각종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저의 미래를 주식으로 그렸죠.”

복학 후 증권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최 대표의 주식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그는 우연히 당시 유리자산운용사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차문현 전 대표의 박사 학위 논문 집필을 돕게 됐다. 당시 최 대표가 수강하던 수업의 담당 교수가 차 전 대표의 박사 학위 논문 작성을 돕는 이를 모집했기 때문이다. 논문을 함께 작성하며 차 전 대표는 최 대표의 능력을 높이 사 유리자산운용사 인턴으로 취업할 것을 권유했다. 최 대표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의 주식을 관리하고 업무 범위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그는 이 같은 일을 거치며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 구조에 대해 알아갔다.

“유리자산운용사는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예요. 고객의 자산을 회사에서 직접 맡아 관리해주죠. 자산운용사에는 각 고객의 자산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가 존재해요. 펀드매니저가 증권 회사의 법인영업팀으로부터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받아 주식 투자 관련 정보를 얻어요.”

자산운용사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있어야 고객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증권 회사 역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주식의 투자를 결정하고 기업 주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이가 바로 애널리스트이다. 이러한 애널리스트의 주요한 업무에 최 대표는 매력을 느꼈다. 막연히 증권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최 대표의 생각이 증권 회사의 애널리스트가 되겠다는 목표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원래 저는 막연히 증권 회사에 입사하고

자 하는 목표만 있었어요. 제가 일했던 자산운용사는 펀드매니저가 고객의 주식 투자를 돕는 형태였어요. 자산운용사 내 자체적인 애널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만 당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의 주식 투자를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해줄 애널리스트가 필요했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펀드매니저보다 애널리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저의 진로를 애널리스트로 정하게 됐죠.”

2006년 11월, 최 대표는 인턴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향증권에서 애널리스트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유향증권 재직 시절 별명은 '쓰샹'이었다. '쓰면 상한가'라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으로 최 대표가 맡은 종목의 주식이 주식 시장에서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상승한 것에서 기인했다. 최 대표가 맡은 종목들 중 대다수 종목의 주가가 오르며 유향증권 내에서 최 대표의 입지가 굳어졌다. 특히나 유향증권에서 근무 당시 아프리카TV(현 SOOP) 종목을 발굴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아프리카TV가 시가 총액 대비 급상승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이미 큰 상승세를 타고 있던 대기업이 아닌 소형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며 해당 기업 보고서를 쓰는 데 주력했다.

“지금은 주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많지만 당시에는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가 나와있지 않았어요. 애널리스트 생활로 인해 여러 기업을 탐방하면 기업의 자체적인 내부 분위기를 직접 체감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확실히 애널리스트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아프리카TV는 당시 게임 방송 등이 많이 나왔어요.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은 들고 다니니까 여기저기서 동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 예상했어요. 결국 그런 시대가 왔고 개인 방송 형태인 아프리카TV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휴대폰 결제서비스인 다날과 같이 제가 맡은 종목들의 주식 성격이 많이 관촬았어요.”

### 용기와 혁신으로 일궈낸 성공

유향증권에서 최 대표는 애널리스트로서 쓰고자 하는 보고서의 방향이 회사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형주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기업이 주가 상승을 이뤄내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꼈다. 때문에 펀드매니저의 수요가 많은 대기업의 보고서를 작성하길 바랐던 유향증권과는 뜻이 맞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애널리스트로서 자신만의 독립적인 의견을 내하고자 했으며, 유향

증권을 나와 스스로 독립 리서치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는 펀드매니저의 큰 관심을 받는 기업에 대한 보고서여야 해요. 펀드 매니저들은 삼성전자 등 몇 천억씩 수익을 내는 기업의 보고서를 선호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대기업 보고서를 작성하길 바라죠. 하지만 저는 5천 억 원 이하의 중·소형주 기업 보고서를 주로 작성했어요. 크게 오르지 않는 대기업 주가와 달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했을 때 중·소형주 기업의 주가는 큰 상승세를 보였어요. 저는 그 부분에 많은 자부심과 성과를 느꼈죠.”

더불어 그는 증권계의 관례상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꼬집었다. 애널리스트가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낮을 것으로 사료돼 예상치대로 보고서를 낸다면 기업이 이를 좋게 보지 않아 추후 기업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점을 우려해 실제 예상치를 담은 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에 좋지 않은 보고서를 낸 애널리스트들에게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의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가 있죠.”

그는 독립 리서치회사가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가 원한 독립 리서치회사는 투자자들의 증권 매매를 중개하는 일반 증권회사가 아니다. 법인영업팀의 관리·감독 하에 보고서 작성 및 유통이 이뤄지는 증권회사와는 달리 독립 리서치회사는 애널리스트들이 온전히 자신의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낼 수 있다. 법인영업팀과 같은 회사의 감시와 통제가 존재하지 않아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기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최 대표는 독립 리서치회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식은 그 회사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의 주식 담당자와 많이 만나요. 직원분이 저희에게 기업의 상황이 좀 안 좋지만 추후 성장 가능성을 바랄라고 얘기해요.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도 기업의 주가가 빠진다는 보고서를 낸다면 기업에서 해당 애널리스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따라서 저는 법인영업팀의 영향 없이 애널리스트가 쓰고 싶은 보고서를 마음껏 내고자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독립 리서치회사로 왔어요.”



사진 제공 : 최성환

▲리서치알음 사무실에 있는 최성환 대표



사진 제공 : 최성환

▲금융투자대상을 수상한 리서치알음

당찬 그의 계획과는 달리 설립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기도 했다. 당시에는 국내 독립 리서치회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소속 직원들이 기업으로부터 애널리스트의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다.

“뭘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요. 당시 해외에는 독립 리서치회사들이 많이 있고 유명했지만 국내는 하나도 없었어요. 기업에 탐방을 하러 갈 때면 다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증권사에서 일했던 사람임에도 애널리스트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듯한 시선을 받았죠. 기업들에게 일일이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도 많이 드리곤 했어요.”

리서치알음은 독립된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투자 상품 추천을 하고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에 착수했다. 애널리스트들의 성과를 분석해 관련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STOCK9330'은 그런 리서치알음의 욕구에 맞춰 개발된 앱이다. 투자 성과에 기반한 애널리스트들의 순위가 제공되며 애널리스트 개개인이 제작한 보고서도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발간 이후 기간별 주가 수익률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뉴욕 유학 시절 지인의 추천으로 인공지능 전문가인 김성욱 박사님과 연이 닿았어요. 저희가 애널리스트 랭킹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개발

의사를 김 박사님께 전달했어요. 관련 프로그램 개발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측과 함께 앱 개발에 착수해 주셨어요.”

또한 리서치알음은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보고서 유료화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통상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이는 보고서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무료로 제공받은 보고서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유료화가 된다면 불법 유통을 예방하고 보고서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 좋은 보고서를 너도나도 공유하게 돼요. 보고서의 유료화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에 대한 돈을 받고서 일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무료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애널리스트들은 굳이 성과가 좋은 만한 종목을 찾는 데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잘 아는 종목에 대한 보고서만을 쓴다는 문제도 발생하죠.”

### 새로운 시도, 한 걸음 더

그가 목표하는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는 애널리스트다. 기업이나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애널리스트는 그 자체로 애널리스트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라도 '이 애널리스트 말은 무조건 믿어도 돼'하는 애널리스트를 꿈꾸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맛집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가는 데는 무조건 다 맛있지'와 같이 말이예요. 저는 기업이나 투자자의 큰 신뢰를 받는 애널리스트가 되길 바라요.”

최 대표는 스스로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는 도전 정신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청년들에게 조언한다. 자신이 선구자가 돼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개척 정신을 갖는다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요즘에는 청년들이 트렌드를 이끌어가요. 계속해서 새로운 게 생기고 금방 또 없어지기도 하기에 저희도 청년들에게 많이 배우요. 굳이 옛날에 성공했던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선택한 것을 꾸준히 잘하다 보면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 : 주식 시장에서 결정되는 주식의 가격

# 미래를 바꾸는 소재, 탄소나노튜브

## 연필심부터 온열의자까지, 탄소의 무궁무진한 변화

추운 겨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온열의자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온열의자는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갈 시 자동으로 열을 발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때 온열의자가 효과적으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이 있다. 바로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탄소나노튜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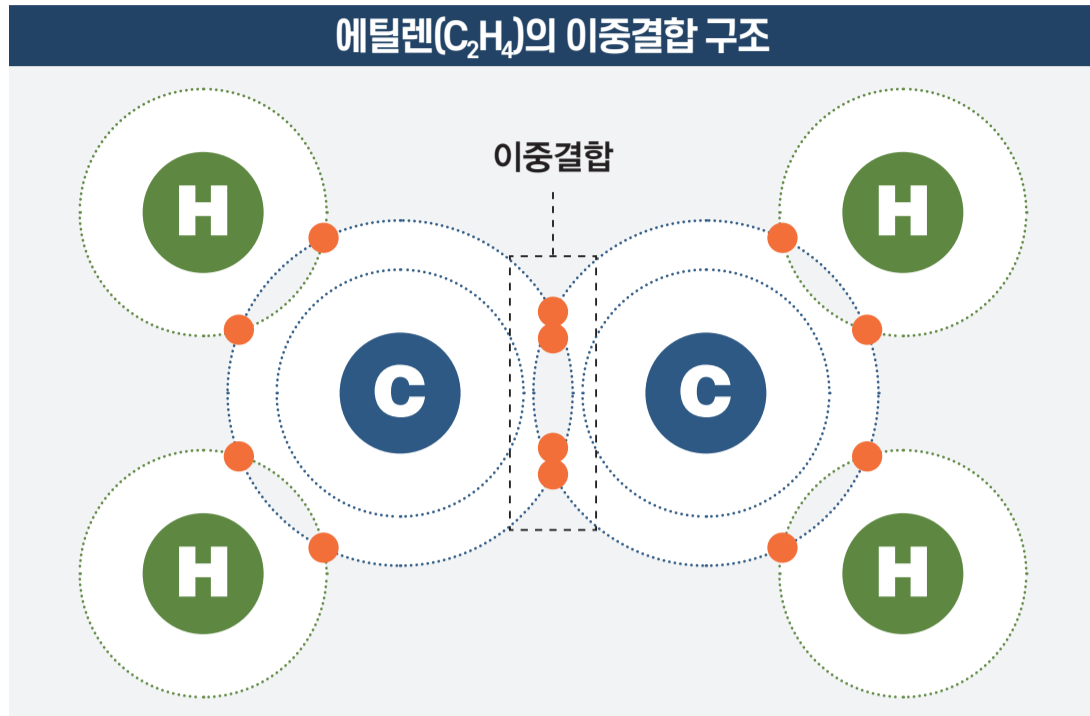
### 탄소 원자가 만들어낸 나노튜브의 세계

탄소나노튜브는 튜브 형태의 매우 작은 탄소 동소체(同素體)다. 동소체란 같은 원소로 이뤄져 있지만, 성질과 모양이 다른 물질을 의미한다. 탄소나노튜브 외에도 흑연과 다이아몬드 등이 탄소 동소체에 해당한다. 탄소나노튜브는 탄소 원자가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결합해 있는 '그래핀'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하는 이유는 탄소 원자 1개가 다른 탄소 원자 3개와 결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손장엽(KIST 기능성복합소재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탄소나노튜브는 탄소 원자들이 강한 결합을 이루는 육각형 벌집 구조로 돼 있어 매우 튼튼하다"고 말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2차원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는 탄소 동소체다. 그래핀이 층층이 쌓이면 3차원 구조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연필심'으로 친숙한 흑연이다. 그래핀은 각각의 탄소 원자가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어 내구성이 높다. 이중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두 개의 전자쌍, 즉 4개의 전자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으로 구성된다. 시그마 결합은 두 원자 사이의 결합으로, 각 원자의 원자 궤도가 겹쳐 있어 강한 결합 구조를 형성한다. 반면 파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수직 방향으로 결합이 이뤄진다.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보니 결합력이 비교적 약하다. 이중결합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2개의 탄소 원자(C)에 4개의 수소 원자(H)가 결합된 에틸렌(C<sub>2</sub>H<sub>4</sub>)이 있다. 손 책임연구원은 "시그마 결합은 결합축에 따른 안정적인 결합을 형성하며, 파이 결합은 상대적으로 깨지기 쉬운 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결합 구조를 형성하는 그래핀으로 구성된 탄소나노튜브는 높은 열전도도를 갖는다. 탄소나노튜브가 높은 열전도도를 갖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열이 전달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열의 전달은 용수철의 진동으로 비유해 표현할 수 있다. 용수철에 의해 진동이 전달되듯 열은 원자 간 결합에 의해 전달된다. 이때 앞서 언급된 이중결합 구조는 열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규칙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는 높은 열전도도를 갖게 된다. 손 책임연구원은 "탄소나노튜브는 탄소 원자가 육각형 구조로 단단히 연결된 튜브 모양을 이루고 있어 열이 원자 간 결합을 따라 매우 빠르게 전달된다"고 전했다.

그래핀 내부 전자의 이동 속도 또한 탄소나노튜브가 높은 열전도도를 갖게 한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으로 단단한 결합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열의 전달을 담당



하는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때 전자의 이동 속도는 광속에 달할 정도다. 조영식(KIST 탄소융합소재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전자의 이동이 단일 방향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의 열전도도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탄소나노튜브는 뛰어난 탄성도 지녔다. 그래핀의 얇은 두께와 튜브 형태가 탄소나노튜브의 탄성을 보다 극대화시킨다. 얇은 두께로 인해 충격을 받아도 금방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핀의 두께는 약 0.2nm로, 머리카락 두께의 50만 분의 1에 불과하다. 손 책임연구원은 "탄소나노튜브는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도 구조가 쉽게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고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 꿈의 신소재를 구현하다

탄소나노튜브는 여러 합성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탄소나노튜브를 얻을 수 있다.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기 방전법 ▲레이저 증착법 ▲화학기상증착법 ▲기상합성법이 있다. 전기 방전법은 2개의 흑연 막대를 양극과 음극에 수 mm 간격으로 배치한 다음 전원에 연결했을 때 강력한 방전을 일으켜 탄소나노튜브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된다. 저항이 있는 물질에 전류가 흐르면 원자와 전자가 충돌하며 열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후 양 전극 사이의 기체에 열이 가해져 원자를 구성하는 물질인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는 이온화가 발생한다. 이온화는 화학물질이 안정적인 상태를 찾기 위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가 같아져 전기적인 중성을 띠는 상태가 플라즈마다.

플라즈마는 약 3,000°C의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지닌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해돼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뜻한다. 기체 상태일 때의 전하량은 플라즈마로 변한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플라즈마가 전기적인 중성을 띠는 이유는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전하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전하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아 전하의 총량이 보존된다. 긴 수도관에 물이 고여 있다가 수도꼭지를 틀면 새물줄이 쏟아지는 물에 의해 기존에 있던 물이 밀려 나가는 것처럼 말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플라즈마가 되기 전 기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라즈마로 변형됐다 하더라도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 플라즈마는 전기적 중성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플라즈마에 의해 전극 사이에 높은 온도의 열이 가해지면 흑연 막대가 기화(氣化)돼 탄소 원자가 방출된다. 방출된 탄소 원자는 냉각 장치에 의해 응결돼 그래핀을 형성한다. 이때 그래핀이 원기둥 형태로 말린 것이 바로 탄소나노튜브다. 이 과정에서 높은 수율의 탄소나노튜브를 얻기 위해 철, 니켈, 코발트와 같은 금속 촉매를 흑연 막대에 넣는다. 금속 촉매는 탄소 원자가 올바른 위치에 배열되도록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육각형 벌집 형태의 탄소나노튜브가 형성된다. 조 선임연구원은 "탄소 원자는 금속 촉매의 크기에 맞는 직경의 탄소나노튜브로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전기 방전법에 이어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이 레이저 증착법이다. 레이저 증착법은 금속 촉매가 포함된 흑연 막대에 강력한 레이저를 조사해 흑연을 가열한 후 탄소 원자를 기화시키는 방법이다. 기화된 탄소 원자는 냉각 장치에 의해 기화된 탄소 원자를 응결시켜 탄소나노튜브를 형성한다. 손 책임연구원은 "레이저 증착법은 정교한 탄소나노튜브 제작과 고

품질의 결과물을 얻는 데 유리한 방법"이라며 "연구 및 고성능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말했다.

현재에 이르러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화학기상증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기판\*\* 위에 탄소 원자가 올바르게 배열되도록 철과 니켈 등의 금속 촉매를 얇게 코팅한다. 이후 메탄과 같은 탄소가 포함된 기체를 합성 장치에 주입한 뒤 약 700~900°C의 고온에서 가열하면 탄소 기체가 분해되며 탄소 원자가 금속 촉매 표면에 붙게 된다. 이때 탄소 원자와 금속 촉매가 결합하면서 촉매 표면 위에 탄소나노튜브가 형성된다. 조 선임연구원은 "화학기상증착법은 기판 위에 촉매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가 수직으로 성장한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전했다.

기상합성법은 화학기상증착법과 달리 기판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에서 탄소나노튜브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가열로 내부에 탄소가 포함된 기체와 분말 형태의 금속 촉매를 주입한 후 약 1,000°C의 고온으로 가열하면 탄소 기체가 분해되며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탄소 원자가 공중에 떠다니는 금속 촉매와 결합하면 탄소나노튜브가 형성된다. 이때 형성된 탄소나노튜브는 마치 솜사탕과 같은 형태를 띤다. 이것을 냉각시켜 코일에 감으면 필름 형태의 탄소나노튜브를 얻을 수 있으며, 수조에 담겨서 응축시킨 후 코일에 감게 되면 실처럼 얇은 형태로 변해 섬유 형태의 탄소나노튜브를 얻을 수 있다. 손 책임연구원은 "기상합성법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장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 첨단 산업을 선도하다

탄소나노튜브는 ▲강도 ▲탄성 ▲열전도도 ▲전기전도도가 높아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탄소나노튜브의 강도는 강철의 200배, 전기전도도는 구리의 100배에 달하며 97.7%의 빛 투과율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탄소나노튜브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히터 등에 활용된다. 손 책임연구원은 "탄소나노튜브는 전자기기, 에너지 저장장치,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탄소나노튜브가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지녔다고 이야기한다. 손 책임연구원은 "탄소나노튜브는 효율적인 전자제품, 친환경 에너지 기술, 차세대 복합재료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탄소나노튜브가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고 전한다. 조 선임연구원은 "탄소나노튜브의 우수한 성질을 현실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연구가 바탕이 된다면 탄소나노튜브는 미래를 책임질 소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율: 원자재에 화학적 과정을 가해 원하는 물질을 얻을 때, 결합이 없는 합성품의 비율

\*\*기판: 전기 회로가 편성돼 있는 판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tel : 02)760-4186

e-mail : hansungnews@gmail.com

address :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kakao Talk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 청년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형형색색의 '아이돌 응원봉'이 국회 앞을 수놓았다. 2030세대 청년층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생긴 변화다. 이들이 이번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참가자 가운데 20대 여성이 18%, 30대 여성이 11%를 차지했다. 집회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촛불과 더불어 응원봉을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외친다. K팝 음악 가사를 개사해 함께 부른다. 중·장년층도 이에 힘입어 응원봉을 구해서 집회에 나갈 정도다.

2030세대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는 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지만, 이에 물리적으로 맞서지 않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목소리를 냈다. 콘서트 등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던 익숙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이는 집회 참여 연령층을 다양화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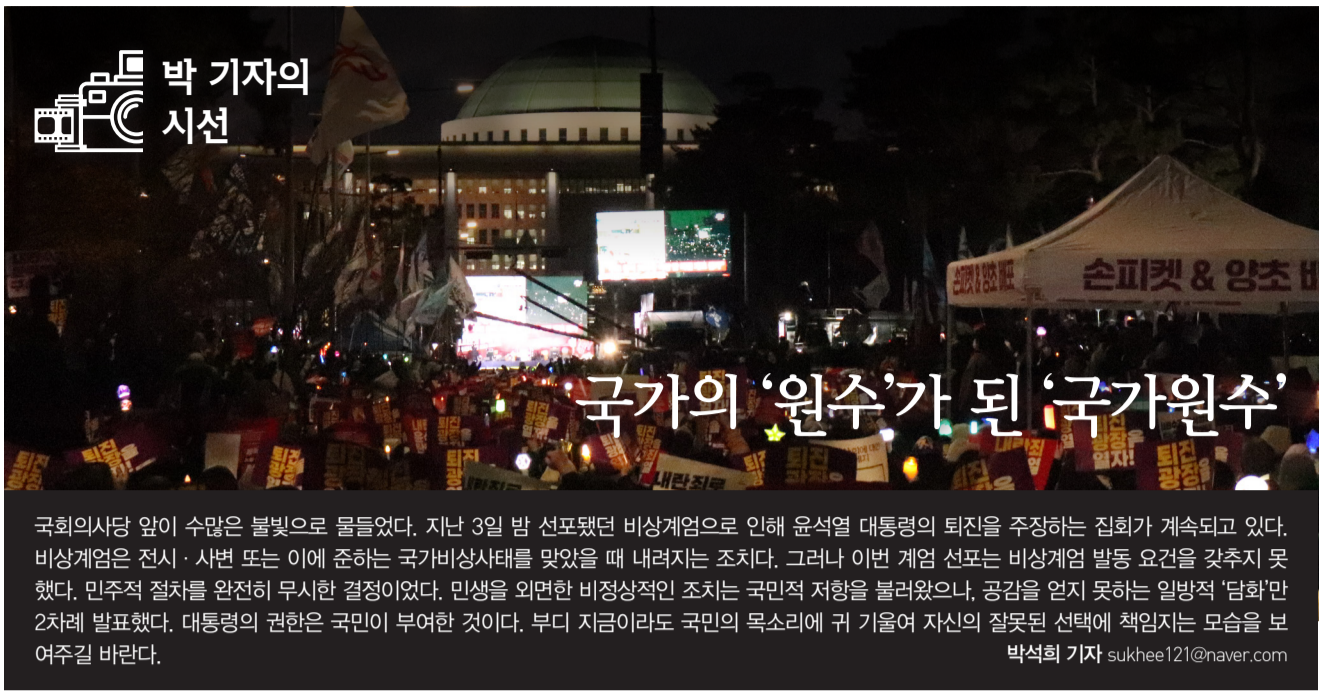
청년층은 불의의 사고를 반복해 겪은 세대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화재 상병 사망사건은 그들의 또래 친구와 동료들 잃은 사건이었다. 수백 명의 피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참사는 반복됐고,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가 얼마나 무책임하

게 청년들을 대했는지 알 수 있었다. 무책임한 국가의 태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청년들은 거리로 나섰다.

계엄령 선포에 따른 여파도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국가의 위상이 곤두박질쳤다.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여행 위험 국가'에 포함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 그에 따른 경제 불황은 더욱 심화된다. 앞으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나 무너진 국가적 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모두 미래 사회의 주축이 될 청년의 몫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직 사수를 위한 이기적인 판단이 불러온 파장이다.

현재 청년 세대는 여러 어려움에 둘러싸여있다. 취업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가 전망도 비관적이다. 와중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청년층이 깊어져야 할 집이 하나 더 늘어났다. 청년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것은 대통령 탄핵만이 아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차별 등 청년이 처한 문제를 함께 지적한다. 청년의 외침은 더 나은 사회를 염원하는 호소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부르는 외침을 대통령은 경청하고 책임져야 한다.

김유성 편집국장



국회의사당 앞이 수많은 불빛으로 물들었다. 지난 3일 밤 선포됐던 비상계엄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았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그러나 이번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었다. 민생을 외면한 비정상적인 조치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으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일방적 '담화'만 2차례 발표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부디 자금지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 기자수첩      법 뒤편 이들을 외면하지 않을 테니

드라마 속 기자는 누구보다 바쁘면서도 집요한 사람들이었다.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또 시간을 쪼개가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날렸다. 이런 기자의 모습이 필자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기자의 꿈을 갖고 있던 않았지만, 잠시나마 드라마에서 보았던 기자가 돼보고 싶었다. 모든 게 처음이었지만, 그 기자들처럼 세상을 더 깊게 알아보고 싶어 《한성대신문사》 지원서를 한자 한자 채워 제출했다.

기자로 활동하기 전엔 '법대로 해라'는 말처럼 법이 개인을 충분히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두꺼운 법전 안에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근거가 다 들어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였다. 하지만 기자 활동을 하며 사회 문제를 취재해 보니 법 사이사이 빈틈이 너무나 많았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그릇된 법의 조항을 꼬집어 해당 법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 법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코너를 연재했다. 산재와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법』부터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연관된 『제조물 책임법』까지 독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의 문제를 파헤쳤다.

법 조항의 허점도 존재하지만, 그 아래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계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는 '법이 개정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였다. 법이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면 단편적인 해결책이 돼 버린다는 뜻이었다. 예컨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중요한 역할임에도 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 게다가 법 개정의 필요성이 무색해질 만큼 그들의

처우도 열악했다. 급여도 낮고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인식도 적는데 무작정 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올리는 것은 모순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 대한 심화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그를 뒷받침할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해당 법을 따라야 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법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도, 억울한 일이 없게끔 바로 잡기도 부족하다. 필자는 앞으로도 이런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다. 설령 기사가 아니더라도 법과 사회적 환경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필자의 글을 읽는다면 독자들도 함께 동참해 보는 것을 어떻게. 필자와 함께 사회의 변화를 꿈꿔보자.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낙산만평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 낙산에 올라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좋아하는 옷부터 골라야 한다. 사람의 옷차림과 그것이 낼 수 있는 분위기는 그 자체로 자신을 브랜딩하는 것이다. 모두 컴할, 토익 따위는 가지고 있다. 모두 인턴, 공모전, 실습경험이 있으며 그냥 되는대로 하거나 한 것들은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자신만의 분위기로 풀어낼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달리 보이게 만든다. 그 의도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계를 좋아하는 옷을 고르는 것이다. 험하게 입은 날은 나도 모르게 걸음에 박자가 생기고, 단정하게 입은 날은 나도 모르게 행동에 정갈함이 담긴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입어보면서 취향이 생겨, 자신만의 농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 맞는 옷

농도를 조절하며 자신만의 분위기를 내는 능력은 곧 자기 PR이되며 차별성을 갖게 한다. 이 차별성은 나라는 하나 뿐인 브랜드를 만들며 자연스레 다른 이에게 나를 브랜딩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격식을 차린 착장은 좋아하지 않는다. 상의의 격식을 의도적으로 떨고, 정갈한 라스트의 가죽신발을 신어 목격함을 준다. 바지는 땀군 격식과 목격함을 융화시켜주는 데님을 선호하며 의도가 없는 부위는 없다. 처음 산 가죽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깨질 만큼 아팠다. 처음 산 데님을 입을 때 뻣뻣함이 불편해 무릎이 당겨왔다. 그러나 내가 의도를 가지고 택한 만큼 견딜 수 있었다. 이젠 가죽도 데님도 내 몸에 맞게 길들어 편한 착장이 됐다. 의도 없이 가죽신

발과 데님을 선택했다면 금방 당근마켓에 팔고 트레이닝 복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도 의도가 생긴다. 우리는 왜 살고 있으며 공부하고 있을까. 대학생이니까. 취업해야하니까. 이런 단편적인 이유들은 발등이 깨질 것 같은 아픔과 당기는 무릎을 견딜만한 의지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한 의지가 생기지 않은 사람은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며 기대기만 한다. 그러다 다른 무언가가 없어지면,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질 용기조차 잃은 채 상사처럼 주고 받으려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좋아하는 옷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지금, 맞는 옷을 찾아나가야 한다.

허필건(사회과학 2)

## ■ 의화정      인생의 큰 즐거움은 어떤 것들일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인생이라고 한다. 부모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첫째 제일 먼저 무엇을 배워야 하며, 어떤 것을 내가 안내해야 할까? 둘째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셋째 어떤 일을 하며 일할 때는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넷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물,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다섯째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떠날 때 내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남기고 떠날 것인가? 부모들이 제일 먼저 안내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안내해줘야 된다. 자신을 이롭게 하고, 상대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좋게 하고, 상대도 좋게 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좋

게 하는 일은 언제나 해야 될 일이고,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가르쳐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제일 먼저 이로운 것 반대말이겠죠? 해로운 걸 하지 말아야 된다. 해롭게 하는 것이 보통 피해를 주죠. 피해주는 것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걸 보통 피해준다고 합니다.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나쁘게 하는 거 없잖아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80% 이상이 행복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행복할까요? 가정, 유치원, 학교에서 어디를 가도 안내하는 가르침은 일관되게 하지 말아야 될 것하고,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해야 될 것은 존

중하는 걸 가르칩니다. '존중하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피해를 주지마라라고 가르칩니다. '피해주지 마라.'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 생각해보면, 학교 폭력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피해주지 마라.' '존중하라.' 이걸 가르치니까 학교 폭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럼 더 커서 사회 폭력도 생길 수가 없죠. 우리 몸에는 녹음이 있다고 한다. 그 녹음기에 녹음이 되어 있다가 올라오는 것마다 '피해주지 마라' '존중하라.'가 올라오니까, 삶의 기본이 정립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질서입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질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은 배우며 사랑하고, 일하며 나누고, 그러면서 유산을 남기는 이런 게 삶의 큰 흐름의 즐거움입니다.

전우부(컴퓨터공학부) 교수

## 기자사령

퇴수습기자 허운호(인문 1)

임부장기자 이승희(사회과학 2) 박석희(상상력 1)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관 김남용 편집국장 김유성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편집자주)

지난 여름, 국제 도서전에 청년들의 발길이 점차 늘어나더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 열풍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지금의 청년은 독서 그 자체를 즐긴다. 그리고 그 방식 또한 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간다. 책 속 세계로 빠져들기 위한 매개체가 된 '팝업스토어', 독서와 술을 함께 즐기는 '북바(BookBar)'가 독서 유행의 중심에 있다. 이는 독서가 청년층에게 또 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들은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며 자기계발의 도구로 이용한다. 이들은 무언가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자 독서 후 '필사'를 진행하거나 강제적으로 전자기기와 멀어지고자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다. 이를 넘어 개인만의 '프라이빗 독서 공간'을 찾아 휴식을 취하며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청년들은 왜 독서를 넘어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를 탐구해보자.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책이 선사한 특별한 순간

## 읽고, 느끼고, 체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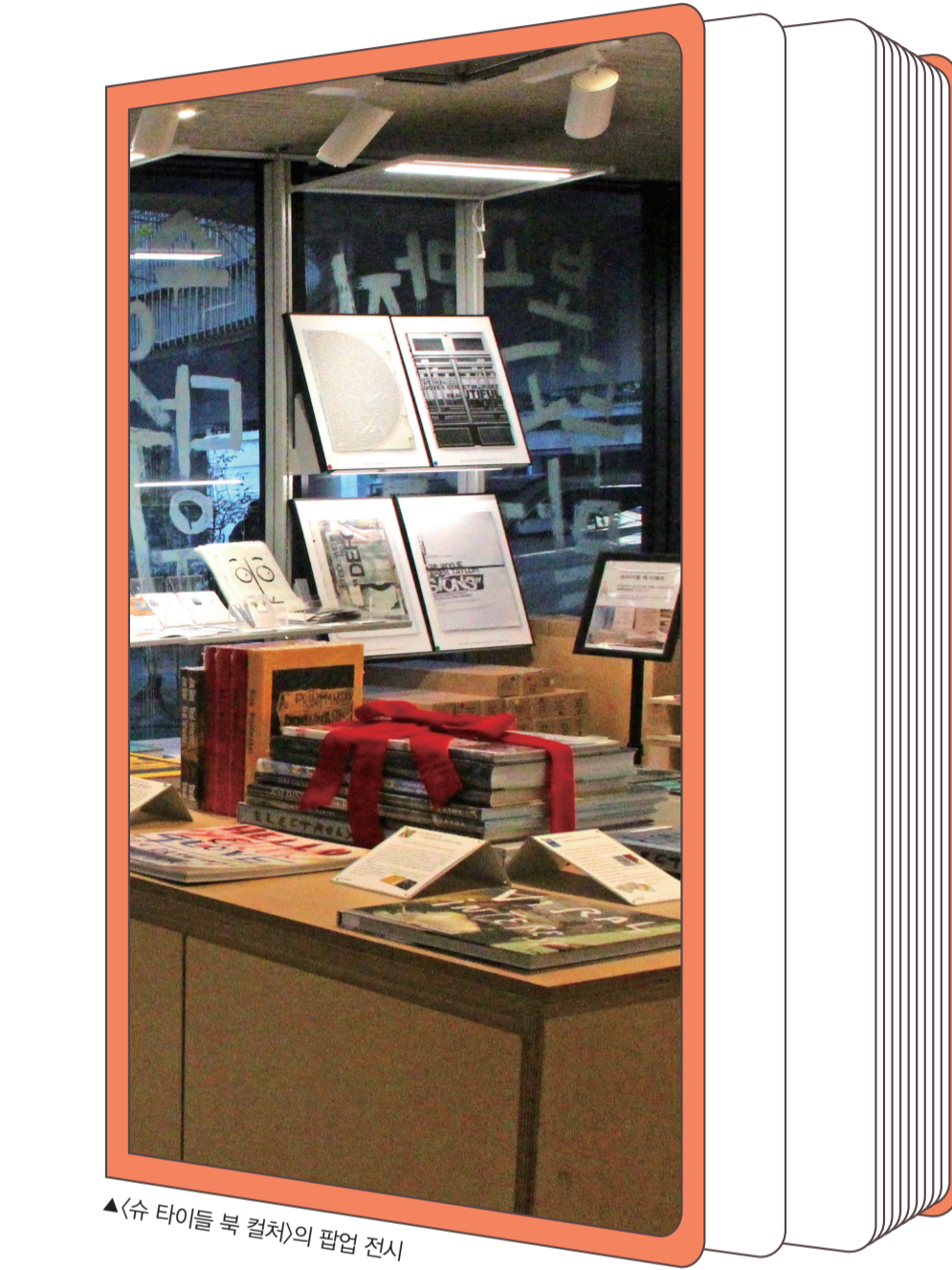
청년은 독서를 통해 더 깊은 연결을 추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전 연령층 중 20대의 독서율이 75.5%를 기록했다.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종합 독서율은 지난 ▲2019년 55.7% ▲2021년 47.5% ▲2023년 43.0%로 꾸준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중 20대의 독서율은 ▲2019년 77.8% ▲2021년 78.1% ▲2023년 74.5%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지능전자시스템전공 1학년에 재학 중인 박규리 학생은 "최근 들어 여가시간에 독서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며 "청년들의 문해력 저하가 대두되는 요즘 시대에 취미가 독서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에게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 다양한 경험과 함께 책 속 세계로 몰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들은 책을 가만히 앉아 읽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책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책을 주제로 한 팝업스토어는 청년들에게 책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팝업스토어는 통상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며, 특정 매장을 테마에 맞게 꾸미고 관련 제품 판매 및 전시하며 브랜드를 홍보하는 매장이자 독서 관련 팝업스토어는 출판사나 온라인 독서 플랫폼, 작가 등 책과 관련한 브랜드나 인물을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한다.

이처럼 책을 주제로 한 팝업스토어는 방문하는 독자들에게 책에 대한 몰입감을 더욱 선사한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전자책을 대여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가 있다. 해당 팝업스토어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인기를 끈 하나의 웹소설을 주제로 잡아 공간을 해당 웹소설의 배경으로 장소를 구현했다. 팝업스토어 내부 공간은 웹소설에 등장하는 장소와 이야기 속 흐름이 이어지도록 구성됐다. 팝업스토어 입장과 동시에 사전에 제작된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 웹소설 속 이야기의 흐름을 직접 느낄 수 있게 구현된 것이다. 이러한 팝업스토어의 특색은 방문객들에게 마치 책 속으로 들어간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박 학생은 "팝업스토어에 방문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책 속을 구현한 팝업스토어에 방문하면 내 자신이 마치 책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책 속에 등장하는 요소들을 팝업스토어에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해당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뿐만 아니라 관련한 굿즈도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유명 판타지 소설인 『해리 Potter』를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는 호그와트 교복을 직접 착용해 보고 구매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책과 관련된 이색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문화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에 비롯된다. 박 학생은 "평소에 관심 있게 본 책의 굿즈를 구매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크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청년들은 책과 관련된 색다른 경험을 위해 북바와 같



▲(슈 타이틀 북 컬처)의 팝업 전시

은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기도 한다. 북바는 카테일이나 위스키 등 다양한 술을 즐기는 공간에서 조용히 독서가 가능한 곳이다. 술과 책과 함께 마신다는 색다른 경험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책에 대한 몰입감 형성과 책을 통해 위로를 얻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북바는 책 속에 나오는 술을 실제로 맛보게 하며 작가가 가진 생각과 감정 그리고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 일부 북바는 책에 등장하는 술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 메뉴를 제공하기도 한다. 청년들은 자신이 읽은 책 속에서 봤던 술을 마시으로써 직접 책 속으로 들어간 듯한 색다른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일본의 유명 소설인 『인간 실격』에 등장하는 압생트라는 술을 구현한 것이 그 예시다. 독자들은 책 속의 설명으로만 압생트의 맛을 추측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 압생트를 구현한 술을 맛보으로써 인간 실격이라는 책에 대해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용구(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책에서 언급된 술을 직접 마시

로써 작가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상상하며 책에 대한 몰입을 갖고자 청년들은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박 학생은 "술과 함께 즐길 무언가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이 됐다"고 답했다.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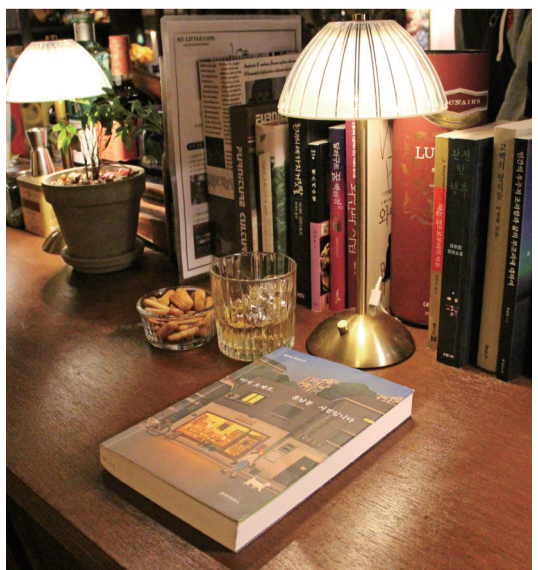
이처럼 청년들은 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한편, 독서를 자기 계발의 도구로 삼기도 한다. 청년들은 자기 계발의 일환으로 집중력 향상을 위해 필사를 택했다. 이들은 좋아하는 글귀나 책의 문구 등을 손으로 직접 적어 내려가며 단어와 문장을 하나하나 곱씹는다.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 과정은 장시간 필사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입입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필사는 시작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아 손쉽게 도전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서 교수는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는 과정에서 차분히 필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은 필사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를 기록하며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태블릿 PC나 노트 등에 여러 문장을 적어두며, 문장과 단어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청년들의 글쓰기나 창작 활동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 좋아하던 문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글에 활용하거나, 인상 깊었던 단어를 활용하는 등 실생활에서 도움을 얻고 있다. 박 학생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고 느껴지는 시나 소설의 구절을 간단하게 적는다"며 "손으로 직접 쓰다 보면 문장을 곱씹게 되는 과정에서 차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다"고 답했다. 충남대학교 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서연 학생은 "필사용 노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필사를 자주 하는 편"이라며 "그전까지는 필사를 하지 않고 그저 책을 읽는 데에 그쳤다면, 이제 필사를 통해 책에서 읽은 내용 중 감명 깊은 구절을 기록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책의 문장을 적어내는 필사와 더불어, 청년들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분리된 환경에서 더욱 책에 대한 집중이 가능한 공간을 탐색했다. 일명 책을 통한 '디지털 디톡스'다. 디지털 디톡스란 휴대전화나 노트북과 같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사용을 중단하는 행위다. 최근 일부 북카페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전자기기의 사용을 전면으로 금지하고, 입장 시 휴대전화를 필수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들은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 북카페를 통해 사회에서 받은 피로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방문한다. 이 학생은 "책을 읽고 싶지만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방해로 인해 집중력이 부족하다"며 "강제로 디지털 디톡스를 하게 되는 북카페를 자주 찾는다"고 설명했다. 나윤민(신구대학교 미디어콘텐츠과) 교수는 "많은 현대인은 휴대폰을 자신의 신체 일부로 여긴다"며 "청년들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 있고 타인의 연락을 의무적으로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점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 북카페의 인기 요인"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디톡스를 넘어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을 찾아 조용히 책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북카페나 도서관보다 규모는 작지만, 아늑한 인테리어와 고요한 분위기를 갖춘 '프라이빗 독서 공간'이 많은 청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한 공간을 통째로 대여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은 청년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라이빗 독서 공간의 경우, 사전에 해당 공간을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원하는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인의 방해 없이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데 최적의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좋은 수단"이라며 "청년들의 프라이빗한 독서 공간 방문은 혼자서 편안히 책을 읽고 싶고 싶은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며 미래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책 읽는 습관을 길러 자기 계발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리틀케이크'에서 즐길 수 있는 술과 책



▲글귀를 적을 수 있도록 제작된 필사책



▲북카페 '반월'의 내부



▲프라이빗 독서 공간인 '희정서재'

사진 제공: 반월